

洪州文化

洪州鄉土文化研究會

042-256-3684



0002639

연작시

“周留城”

여기가 周留城이다.

박 문 신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사변과 보루
주류성 수비군 주둔지 대현리
곳곳에 그 흔적 남아 있다.

산성리의 사로성 화성산성
소구리성 천태산성 임존성들
여기가 周留城이다.

고신자 김정호가 백삼십년전
여기가 주류성이라 확인한 곳

갈팡질팡 중첩지 못하는 사화자님들
이젠 되돌아 볼 때 된것 같은데
아직 버리고 근거 사료 찾아
다시 정리할 때가 된것 같은데

사로국 왕도였던 사로성 중심
화성산성 군사 요충지
누가 보아도 느끼는 고장
여가 바로 주류성

갈국 망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끝까지 도항으려 싸운
풍왕의 보루였다.
마지막 승전 탐관 곳이었다.



1993. 10 / 제 8 호

목 차

권두언/ ... 정진태	2
홍주목의 재정제도사/ ... 배동순	3
사찰/ 석련사 · 백월사 · 영보사 · 청광사/ ... 박문신	12
노은동맥/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생가마을/ ... 전옥진	15
인물탐방/ 팔명학교를 찾아서(덕명학교편) ... 주옥로	26
1919년 3.1독립운동만세 장곡면사건/ ... 김갑현	33
홍주팔경/ 홍주편 · 홍성군편 · 결성편/ ... 배동순	45
〈지상으로 보는〉 홍주향토박물관/ ... 허 규	58
향토사 정보/ ... 편집실	63
호자 복 한 선생/ ... 복익채	65
에절한 홍주문화 누가 지키랴!/ ... 이연완	67
편집후기/ ... 편집위원	69

발행일자 : 1993. 10.

발행인 : 황 규 철

발행처 : 홍 성 문 화 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32-3613 (홍성문화원 내)

편집인 : 박 문 신 · 주 옥 로 · 허 규

인쇄 : 명 암 사/ 대표:김 기 종

표지제자회호 : 정 환 섭



筆者는 지난 1993년 5월 8일자 洪州文化研究會員一部와 같이 全羅北道 扶安邑에서 開催하는 周留城 白江 百濟最後決戰에 관한 討論會場을 찾아 始終討論會議過程을 지켜 보았다.

主管은 圓光大學校이고 主催는 社團法人 扶安郡 愛鄉本部이며, 後援으로는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全北日報, 全北道民日報, 全州日報, KBS, MBC, 全羅北道 愛鄉運動本部로 되었었다.

討論에 나온 圓光大學 全榮來教授와 大谷大學校 鄭早苗教授는 百濟最後決戰의 무대를 이곳 全北 扶安에 位置比重을 두고 發表를 하는가하면 主管側인 姜聲彩氏는 考證을 받아 大多的인 復元計劃을 說明하는가하면 郷土史學家인 禮山郡 德山面 出身 朴性興氏는 周留城이 白江 內浦說에 對하여 強力한 主張과 그들의 力說을 反對意見으로 主張하였으나 主催側의 많은 人員의 抗辯으로 力不及인 現況으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分명한것은 地方郷土史家들이 位置指定問題에 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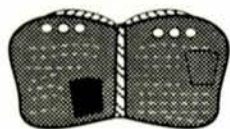
하여 歷史的 地理的인 確實한 考察도 없이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主張하여서도 아니된다.

史學家 朴性興氏가 主張하는 周留城 白村江의 傍證說(傍證說)로는 大興의 唐山(唐山) 一名 鳳樓山과 牙山灣 流入의 唐津石間地域의 白村江 그리고 周留城地인 長谷面 山城里 鶴城山城地의 根據를 두었다. 歷史와 文化란 지나간 事實을 記錄으로 現實을 證言하는것으로 立證되어야 한다.

筆者는 金馬面長으로 在職한 바 있어 金馬面 沿革을 보면 大興山 一名 鳳樓山은 海拔 484m이고, 石築巨城 周圍 2,540m나 되었었고, 百濟最後의 戰跡地로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考證에도 不拘하고 아마도 周留城 白村江의 位置指定의 兩論은 갈수록 解決의 難題가 될 것으로 生覺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洪城郡民의 愛郷의인 史學家의 發掘과 뜻있는 사람의 많은 同參으로 體系的인 考證과 實查를 거듭하여 中民의인 運動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生覺된다.

○ 필자약력: 정 진 태(鄭鎭泰) ○

- 1928년 1월 8일 洪성군 금마면 화양리 출생(부 정존보의 삼남)
- 1948년 1월 4일 洪성국민학교 졸업
- 1950년 2월 10일 지방공무원 자격시험 합격
- 1962년 3월 20일 충청남도시행 지방주사고시 합격
- 1968년 2월 20일 금마부면장, 서부 갈산
- 1971년 9월 30일 금마면장 근무 18년
- 1989년 6월 5일 대통령 공로표창(74047호)
- 1989년 9월 1일 충청남도 도정자문위원 위촉, 식산분과위원
- 1991년 6월 27일 도의회구성으로 해단
- 1992년 2월 洪성서우회 회원, 洪성향교임원, 洪성문화원 향토개발연구위원



洪州牧의 財政制度史

배 동 순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통치 또는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폐 또는 재화를 획득하고 소비하며 관리하는 공경제로서, 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가재정과 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재정주체는 권력적 통치단체로서 공공목적이 국가의 독립질서와 평화유지, 문화향상, 경제의 안정성장으로 국민복지행정을 구현함에 있으므로, 재정의 수입지출 양면에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그 내용을 재화의 취득·소비·관리가 포함되고 있다.

재정제도는 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였고 시대에 따라 면면히 이어져 변천해 왔다. 오늘날의 재정제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홍주목재정제도 연구의 토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절 ... 백제시대의 재정제도

내포지방은 상고시대부터 경제적 기반이 농업이었고 그외 어업, 축산업이 있었다. 그리고 화폐도 존재하였다고 볼 때 국가의 수입은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징수하여 지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산·유통활동에 재정제도가 있었을 것이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농업경제의 기반인 토지는 최대의 생산수단이 되었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자기가 왕의 토지에 살고 왕의 수초(水草)를 먹는다고 하여 국토가 곧 왕이라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사졸에게 왕이 토지나 노예를 사여하는데 그것은 원칙상으로 전리품이 왕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료되는 것이며, 귀족에게는 식읍(食邑), 녹읍(祿邑)을 주었고 포로를 노비로 주어 사적 토지와 노비가 증가하였고 왕실소유의 토지도 매우 많았다. 이러한 귀족의 토지는 대부분이 일반 농민이 경작하였을 것이며, 자기 토지를 가진 농민도 조세를 부담하고 공부(貢賦), 요역(徭役)을 부담하였으며, 천민은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백성에 의한 조세, 공부, 요역에 의하여 국가를 운영하여 나갔던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대외무역이 있어서 조공형식을 취한 공무역이나 상인의 왕래를 통한 사무역이 있었는데 직물, 안구(鞍具), 금, 은, 주옥, 모피류, 인삼, 백자 등이 주로 중국에 수출되고 중국의 복물(服物), 거기(車騎)의 장식품을 비롯하여 무기, 견직물이 수입되었다. 또 백제와 신라의 금, 은, 철, 곡물, 고구려의 모피류가 일본에 수출되었다.

이러한 공, 사무역을 통하여 무역거래가 활발하였으나 국가재정은 주로 일반 백성의 조세에 의하여었음은 국가경제의 기

초가 토지와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정부에서 수도의 시가지에 공랑(公廊:점포)을 설립하여 상인에게 대여해 주어서 매매에 종사케 하고, 정부는 이들로부터 공랑세(公廊稅:점포 임대료)와 거래세를 징수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될 수 있다.

...(홍주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제2절 ... 통일신라시대의 재정제도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은 부와 사치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기반은 식읍, 양전(陽田), 마거(馬車:목마장), 조(租:곡물)이었다.

문무왕 9년(669)에 김유신에게 식읍 500호, 전 500결, 마거 6개소를 주었고, 전 마거 174개소중 22개소는 왕궁, 10개소는 관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귀족에게 분배되었다. 한편 관료에게는 녹읍(祿邑)을 주었는데 이 녹읍의 토지로부터 조(녹봉)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내의 주민을 지배하여 노역에 동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 같다.

신문왕 7년(687)에는 조(租)만을 수취할 수 있는 일종의 직전(職田)을 주고 동왕 9년(689) 녹읍제(祿邑制)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조만을 지급하고 잠정적으로 녹읍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족관료가 주민에 대한 직접 지배를 막고 왕이 직접 지배하는 형식을 취하려는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는 이 직전과 조가 폐지하고 녹읍이 부활되는데 이것은 귀족들이 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자기네들의 이권을 되찾으려는 반발에 타협한 조치로써 따라서 귀족세력이 다시 강대해졌다고 보겠다.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서 재상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고 노동(奴僮)이 3천인이며 무장

한 군인과 소, 말, 돼지가 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 귀족의 부와 사치를 말해주고 있다.

중앙귀족이 집중하고 있는 중앙지인 경주에는 노예가 많았는데 이들은 왕실이나 관서에 소속되어 의식주는 물론 무기, 선박 기타 수공업 등 모두가 귀족을 뒷받침하는 노예들이었다. 일반 농민은 조(組), 용(庸), 조(調) 제도에 유사한 조세제도에 의하여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천민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각종 수공품을 공물(貢物)로써 바쳤다.

제3절 ... 고려시대의 재정제도

고려전기의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시과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잡역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시과제도에 의하여 토지를 분급받은 사람은 문무양반과 군인, 서리 등인데 이들은 토지를 소유한 것이지만 그 소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토지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조(租)의 수취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죽고 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1대에 한한 것이었다. 물론 군인, 서리 등은 자손이 직역(職役)을 세습하였고 그에 따라 전정(田丁)도 계승하였으므로 공음전(功蔭田)과 더불어 영업전(永業田)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양반전은 국가에 반환하는 납공토지(納公土地)였던 것이다.

토지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전은 왕실, 국가와 국가기관이 직접 소유하는 공유지거나 혹은 그 조(組)가 왕실, 국고 기타 공적기관에

귀속하는 토지로 1과, 2과, 3과로 구분된다. 1과는 왕실 어과지(御科地)인 내장전(內莊田)이고 2과는 공해전을 비롯한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과 민유지 위에 설정된 왕실 및 궁원, 사원의 수조지(收租地) 주로 장(莊), 처전(處田)이었다.

장, 처전과 내장전은 왕실재정의 기반이 되는 토지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장, 처가 왕실 및 궁원, 사원에 조를 납부하는 촌락의 수조지였던데 비해 내장전(또는 內在田)은 왕실에 직속되어 있는 면적단위의 소유지였다.

이 내장전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으나 주변 농민의 용역에 의하여 왕실이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 또 전호제(佃戶制) 경영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공해전은 2과 공전으로 중앙 및 중앙의 각급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중앙 공해전은 유수(留守), 육조(六曹), 법조사(法調司), 학원(學園)등에 지급된 것이고, 지방 공해전은 주, 현 등 일반 행정관청과 향(鄉), 부곡(部曲) 등 특수한 행정관청, 관(館), 역(驛)과 같은 교통로의 요지에 설치된 기관에 고루 지급되었다. 지방의 공해전에는 공수전(公須田)과 지전(紙田), 장전(長田)이 있는데 공수전은 관청의 운영비와 외관녹봉, 지전은 종이 조달비용, 장전은 역장(驛長), 향장(鄉長), 부곡장(部曲長)에게 지급되는 토지이다.

이외에도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의 공전이 있어 국가와 지방에 소요되는 경비를 토지를 할당하여 충당하였다.

사전은 개인 및 사적기관이 소유하는 사유지와 조(租)가 타인에게 귀속하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2과 공전에 대비되는 궁원전(宮院田), 사원전(寺院田), 양반전(兩班田)과 3과 공전에 대비되는 군인호정(軍人戶丁-鄉吏田)등이 있었다.

홍주의 공음전은 홍주홍씨에게 내려졌다. 홍주홍씨의 시조인 홍규(洪規)가 왕건 태조를 도와 홍주성 전략의 대공과 수원성 공략의 대성으로 고려개국을 보았으므로 홍주일원에 장전을 하사하였다. 사패지지(賜牌之地)를 하사 받은것은 홍주홍씨가 최초였다. (홍주에서)

양반전은 전시과에 의하여 문무양반에 재직중인 관료들에게 복무의 댓가로 지급해 준 양반과전이며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해준 토지이다.

이와같이 고려 전기의 재정은 전시과에 의한 토지분급으로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였으며, 다른 한편 관리들에 대하여 현물인 미곡을 급여하는 이중체제로 되어 있었다.

이 녹봉은 현직, 실직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데 연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급품목은 미(米), 속(粟), 맥(麥)이었다. 요컨대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전시과와 녹봉제에 의하여 이중적인 대우를 받아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그후 12세기 초엽에는 전시과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이것을 시정하고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원종 10년을 시초로 하여 충렬왕 14년과 27년과, 공민왕 1년, 우왕 7년과 14년 등 반복하여 설치되었다.

그밖에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忠烈王 7년), 찰리변위도감(찰숙왕 5년),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찰숙왕 7년), 절급도감(우왕 8년) 등 각종 명칭의 임시기관들이 단속적으로 존재를 거듭하였다. 이렇게 십여 차례 걸쳐 사전 농장(農莊)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또 홍년에 백성이 굶주릴 때 미곡을 빌려 주고 가을에 곡식을 판에 환납하는 의창(義昌)이 있었고, 또 상평

창(常平倉)이 있어 백성을 구휼하였다. 그밖에 구휼기관으로는 장생고(長生庫),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혜민국(惠民局), 구제도감(救濟都監), 제위보(濟危寶)등이 있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상고로부터 미(米)와 포(布)가 물품교역에 있어서 화폐의 구실을 해오다가 성종 15년(996)에 이르러 비로소 철전(鐵錢)을 주조하여 사용케 되었다. 이것이 역사상에 있어 철전의 시초이거나와 인민들은 미(米), 포(布)를 사용하던 오랜 습관이 젖어 철폐(鐵幣)의 사용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었다.

그리하여 다음 목종때에는 철전의 사용을 완화시켜 차와 술 및 음식물을 파는데 한하여 철전을 사용하게 하고 일반백성들의 교역에는 미(米), 포(布)로 쓰도록 하였던 바, 철로 된 화폐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미, 포가 여전히 화폐처럼 쓰였다. 그뒤 숙종 1년에 이르러 대각국사(大覺國師)의 건의에 의하여 다시 철전이 쓰여지고 때를 같이 하여 은병(銀瓶)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1개가 포 100여필에 해당되었으나 때에 따라 변동은 있었다.

제4절 ... 조선시대의 재정제도

1. 조선전기의 재정제도

조선왕조의 재정은 그 수입면에 있어서 각 국가기관에 분급된 토지로서 각각 수입원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신분제에 따라 종신 또는 임시의 역(役)을 부담케 하여 소요 노동력을 충당하기도 하고, 혹은 세(稅)와 공물(貢物) 그리고 역(役)의 일부인 물납(物納) 등의 공납(貢納)에 의존하는 등 매우 무질서한 것이었다.

경비지출면에서 상공(上供)은 궁중의 어수(御需)로서 궁중의 일체의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관계 각 사(司)에서 현물을 매일 진배하는데 왕실비는 주로 각 지방의 공물(貢物)로써 충당되었으며, 왕실의 존엄을 위하여 국비보다 우선함은 물론 그 액수도 무제한으로 책정하였다. 국가용도는 제사, 하객 등 중앙관부의 경상비와 비황(備荒)에 쓰이는 것으로 풍저창(豐儲倉)에서 장리(掌理)하였다.

녹봉은 문무 양반 관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흥창(慶興倉)에서 관장하며 군자(軍資)는 군사행동에 대비하여 양곡을 비축하는 것으로서 군자사(軍資寺)가 관장하였다. 의창(義倉)은 곡가조절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초기에는 상평창(常平倉)을 두어 실시하였으나 뒤에 없어지고 환곡제도가 이에 대치되었다.

그리고 의료는 민중의료를 위하여 실비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 등이 설치되었으나 후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던 것이다. 이외에 중앙관부의 운영경비는 공전에서 수익되는 공조(公租)로써 충당되었다.

세곡 및 공물은 각종 창고에 비치하여 그 수납절차와 관리가 매우 엄격하였다. 출납은 호조(戶曹)의 공문서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사(諸司)가 승정원을 거쳐 왕명을 받은 뒤 그 승전첩인(承傳帖印)으로써 수령하되 그 출납에는 사헌부 감찰이 임검하고, 그 출납의 수량을 연4회 계삭(季朔)에 회계계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곡(錢穀)을 관장하는 각 사(司)의 창고는 매월초 호조랑관(戶曹郎官)과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공동으로 현상을 조사 보고하였다. 경외(京外)의 관리가 교대할 때에는 그 소관물자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어야만 책임해제의 증명이 발급되어 다른 관직에 전보될 수 있고, 전곡아문(錢穀衙門)과 수령의 경우는 이 절차가 더욱 엄중하여 그 교대후에 감사(監司)가 정한 차원(差員)과 신관과 함께 공동입회하여 현물과 장부의 대조를 받아야 하였다.

홍주관아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분급된 토지를 기본 재원으로 삼고 있다. 홍주의 각 행정기관, 군사기관 및 교통기관은 운영비에 충당되는 공수전(公須田), 녹봉에 충당되는 아록전(衙祿田), 관리 기타 유역인(有役人)의 보수에 충당하는 외역전(外役田), 잡색가전(雜色佳田), 역마를 위한 마분전(馬分田) 등 특수시설에 주는 토지, 마장전(馬長田), 부장전(部長田), 급주전(急走田) 등 교통기관 담당자에게 주는 전지(田地), 원전(院田), 진부전(津夫田), 제전(祭田), 학전(學田), 사사전(寺社田), 내수사전(內需司田) 등이 있다. 이외에 군자를 위한 변경지역의 국둔전(國屯田)과 홍주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官屯田)이 있다.

지방재정의 지출면을 보면 외관(外官)에게는 원칙적으로 녹과(祿科)가 없고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령(守令), 첨사(僉使), 만호(萬戶)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의 극히 일부에만 녹(祿)이 있고, 도사(都事), 양계노후(兩界老後), 평사(評事)만이 녹을 받았다.

따라서 아문공수전(衙門公須田) 등의 소출은 그 용도에 있어 공사의 구별이 분명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외관은 그 수입이 풍부하다는 관념이 성행하여 기강이 해이해짐에 따라 속료 또는 민간에 대한 수탈이 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외방(外方)의 이속, 노비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가 극심하였다.

외관의 지출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공전(公田), 공해소수(公解所需) 이외에 사객(使客) 혹은 감사, 병사순행의 지출 급여, 부경(赴京), 사신의 청구, 중국사신의 접대, 신구관의 낭송 등은 그 비용과 민역(民役)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경비면에서 국고와 왕실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막연한 수입을 계산하

여 지출을 규제할 것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일정한 세입과 지출의 예정이 서있지 않아 근대적인 재정개념으로서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조선후기의 재정제도

조선왕조는 적어도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하여 전국의 전결수(田結數) 그리고 재정기구와 절차 및 그 내용면에서 각기 명백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전통적 경제체제의 붕괴가 촉진되고 아울러 전란과 재정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상의 정비가 촉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재정은 토지 및 현물과 전화(錢貨)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으나 그것은 가산적이고 무계획적인 단조로운 구조를 이루었다. 즉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가산국가로서 법제도가 매우 개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만큼 국왕과 관인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매우 컸으며 공사재정의 한계가 애매하여 삼정(三政)의 문란과 같은 재정상의 난맥을 야기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왕실재정과 일반재정간의 구별은 애매하기는 했으나 양자가 전혀 무분별한 것은 아니었다. 왕실 각부를 위한 기구 및 인원과 왕실의 재산은 법 기타 관례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왕실공상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조에 있어서 국가재정도 1년제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예계(豫計)속에서 운영되므로써 소박한 예산제도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정기구도는 성종때 마련한 호조 예하의 판적사(版籍司), 경비사(經費司) 및 회계사(會計司)는 각각 한(漢)의 사농(司農), 판적사(版籍司), 당(唐) 좌장(佐藏-經費司) 및 송(宋)의 심계원(審計院), 회계사(會計司)를 모방하여 만든 것인데 조선의 풍토에 맞지 않다.

그후 여러가지 분방(分方)을 두어 사무

를 관장시켰다. 그후 경비사는 폐지되었고 호조직제도 변화되었으며 일반 재정기구 외에 계사소(計士所), 산학청(算學廳)이란 특별관청을 두어 각 사(司)의 회계를 담당하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소요재정의 충족을 위해서 호조 이외에 특별 재정관청이 설치되었는데 광해군 때는 대동미포전 관장기관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영조 27년(1751)에 설치한 소위 균역세 관장기관으로 균역청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영조 29년 선혜청으로 이속되었다. 그리고 태종 4년에 설치한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청은 선조 41년(1608)에 균역청에 합창되고 현종때 설치한 구휼기관인 진휼청 역시 숙종때 균역청에 합창되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으로 관찰사, 도호부사 및 각 수령 밑에 중앙의 육조와 병행해서 육방(六房)을 두고 육방에 상사의 명령을 받아 호구, 공부, 전곡 등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한편 세곡을 저장하는 창고와 현물을 조운할 여러 조창이 각지에 있었다.

당시의 세수물 주로 전세물(田稅物)은 매년 9월전 모든 전지에 관하여 지방수령은 매년 전세율의 등급을 결정하고 관찰사는 재심 계문(啓聞)하여 의정부, 육조의 동의에 의하여 세수결정방식에 따라서 징수된다.

신가경전(新加耕田), 전재상전(全災像田), 과반수 상전(像田), 병으로 인하여 미경중인 전진전(全陣田) 등은 농부가 권농관에게 보고하면 권농관은 새로 심사하여 8월 보름전에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이를 잘 감안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관찰사가 검사후 장부를 만든다.

그래서 관찰사는 수령이 보고한 입안을 수령에게 돌려 보내 9월 보름전에 견수계문(見數啓聞)하고 조관을 파견하여 장부 및 입안을 심사숙고 후 조세를 정하였다. 그리고 조세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경

(京)은 한성부에서 외(外)는 관찰사가 실태보고서를 받았다.

조선시대의 법전을 보면 수입에 관해서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지출에 관해서는 비교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봉급지출에 관해서만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소위 양출제입(量出制入)원칙에 의해서 재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들이고 이에 자의적으로 지출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세입종목은 대동미(선조 41년), 결작(영조 27년), 삼수미(三手米, 선조 26년), 포량미(布糧米, 고종 8년), 별수미(別收米, 1608), 부가세 등 토지세에 해당되는 것과 군보포(軍保布, 중종 10년), 노비공(奴婢貢, 태조 14년 설정, 영조 50년 폐지) 및 수산세로서 염세, 어세 그리고, 국세에 해당하는 책문후포세(柵門後布稅, 선조 26년), 화물세(貨物稅, 고종)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세출종목에서는 관리에 대한 녹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였다. 조선후기의 재정은 순조 이후 세도척족의 발호에 의해서 더욱 극심하게 문란해졌으며 순조 11년(1811)의 홍경래난이나 철종 이후의 민란은 모두가 이 재정의 문란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철종 13년(1862) 5월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종의 세제개정위원회인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신설하고 동 이정청에서는 삼정이정절목(三政釐節目)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장 폐단이 막심했던 것이 환곡제(還穀制)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폐지하고, 전결(田結)로 귀이시켰으나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동년 8월에는 이정청이 폐지되어 삼정에 관한 문보(文報)는 비변사(備邊司)에 이관되었던 것이다.

3. 조선말기의 재정제도

1) 갑오경장 이전의 재정개혁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원군은 국정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재정면에서 먼저 왕실 종친과 일반 특권 양반귀족들이 광범위한 면세전결을 환수하여 국가재정에 보완하고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하여 그 지배하에 있었던 토지의 면세를 없앴다.

한편 잔여서원에 조차 납세의 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양반세가의 묘소를 위하여 한지(閑地)를 광점하는 것을 폐지하여 수세 전지가 침식되고, 산림이 개인 소유화되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도성문을 출입하는 자에게 성문출입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원군의 노력으로 국가재정을 회복시켜 국고를 충실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의 근대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개혁의 기운이 일기 시작하였다. 고종 21년(1884)에 갑신정변으로 성립된 개화당 내각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떠 국정의 일대 쇄신을 기도하여 국정개혁 14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그중에는 지세(地稅)의 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농간을 막는 동시에 민단(民團)을 펴게 하며 국용(國用)을 유족할 것(제3항)과 무릇 국내정치는 모두 호조를 경유하여 관할케 하고, 일체 기타 재부아문(財簿衙門)을 파면할 것(제12항) 등을 제안하여 근대적 재정제도를 채택할 것을 국정개혁의 기본강령의 하나로 분명히 선포하였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 내각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나 개화당이 실천에 옮기려던 개혁안과 같은 재정사상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임오군란에서

몰려섰던 일본의 재등장 및 외세의 침략과 삼정의 문란으로 고종 31년(1894) 갑오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동학군이 제시한 건의사항중 그 대부분은 재정에 관한 것이다. 그 청원의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군정(軍政), 환곡정(還穀政), 세정(稅政)의 삼정을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의거하여 준행하 것이며, 둘째 진거(賑車)는 곧 한도내의 인민의 고혈을 착취한 것이니 즉시 폐지할 것이며, 셋째 각 읍 탐관오리는 모두 파직할 것이며, 넷째 각 읍의 아전임채(衙前任債)는 일체 금지할 것이며, 다섯째 균역관(均役官)의 진결(陣結) 농간은 생민(生民)을 괴롭히니 폐지할 것이며, 여섯째 결미는 구대동례(舊大同例)대로 복고할 것이며, 일곱째 군전(軍錢)은 춘추 매호 1량씩으로 원정(元定)할 것이며, 여덟째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보마기세 수는 폐지할 것이며, 아홉째 보부상, 잡상의 작당행폐는 영구히 없애도록 할 것이며, 열째 흉년의 백지징수는 금할 것 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시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2) 갑오경장때의 재정개혁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침입한 일제는 1894년 7월 24일에 무력으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동년 7월 26일에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 공사(大島公使)는 자신이 군국기무처 고문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불과 수개월동안에 무려 208건에 달하는 중요법안을 심의결정하여 전격적인 개혁을 강행하였다. 이 군국기무처에 의하여 강행된 제1차 개혁에 있어서 재정에 관한 주요개혁은 재정기구의 정비, 조세의 금납, 화폐제도의 개혁, 회계심사국의 설치 외공진상(外貢進上) 및 각 사외도(司外道) 청구의 혁파 등을 들 수 있다.

갑오년 6월 28일 중앙관제를 개혁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고 의정부내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하여금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및 화폐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케 하고 도 지방재정을 감독하였다. 이리하여 종전의 난맥상태에 놓여 있던 재정기구가 탁지아문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또 왕실의 사경제와 국가공공의 가계인 재정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금은 종전에 조세(地代)를 미(米), 포(布) 중심의 생산물 또는 화폐로 납부하던 것을 갑오년 10월부터 모두 금납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세금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행을 설립하고 국고를 방출하여 곡물의 매매유통을 촉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한 이같은 곡물유통촉진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7월 11일에는 은보위제도를 채택한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을 의결공포하고 종래의 무질서한 화폐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화폐재정의 운영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품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도량형을 개정, 통일하여 신제의 장척(丈尺), 두해(斗斛), 평형(秤衡)을 사용토록 하였다.

동년 8월 18일에는 본색공납(本索貢納)의 일종인 외공진상을 모두 철폐하고 9월 3일에는 각 사(司)의 외도구청제(外道敎請制)를 혁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종전의 중앙 각 사에서는 약채(藥價), 필채(筆價), 포진채(鋪陳價), 구청채(敎請價), 벌례전(罰例錢), 호장채(戶長價) 및 기타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이를 외방영(外方營), 읍(邑)에 현물 또는 전화(錢貨)로 책정하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에 한하여 그 경비를 탁지부에서 수세하여 이급(移給)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결세(結稅) 남징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리세와 잡세를 폐지하고 또 민전지주(民田地主)들에 의한 도조(賭租)의 남징과 농장관리인 사음(舍

音)과 하인들의 중간 수찰을 금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고종 32년(을미년) 3월 25일부터 개혁을 단행하여 3월 30일까지 불과 6일동안에 재판소구성법과 내각 및 각 부의 관계를 비롯하여 무려 34건에 달하는 개혁을 법률 또는 칙령으로 반포하였다. 여기서 재정개혁에 관한 부분은 탁지부에 의한 재정관장, 회계법의 공포, 징세 및 세무감독기관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즉 을미년(1895) 3월 25일에 칙령 제 54호로 반포한 탁지부 관제 제1조에는 탁지부 대신은 정부의 재정을 총괄하며 회계, 조세, 국채, 화폐, 은행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장리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서 근대적 화폐제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였다. 우리나라는 1894년 신식화폐발행장정을 발표하여 은본위를 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화폐장정의 실시로 백동화(白銅貨)의 범람을 가져왔을 뿐더러 민간에서는 엽전도 유통되고 있었으며 개항장에는 일화(日貨)가 범람하고 유통이 금지된 중로화(中露貨)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는 폭락하여 당시의 화폐제도는 심히 어지러운 상태였다. 그리하여 1901년 금본위제를 수립하여 신화폐 조례를 반포한 바 있으나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1904년에 이르러 제1차 한일협약을 계기로 한국의 화폐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정리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화폐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한국의 본위화폐를 일본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며, 둘째 일본 화폐의 한국내 통용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한국정부의 수지에도 사용하게 하며, 셋째 백동화를 회수하는 대신에 다른 보조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엽전은 점차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화폐개혁을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화폐정리는 근본 목적이 식민지수탈을 용이하

게 하자는데 있다.

한말의 재정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화 과정, 재정수단의 단일화 과정과 더불어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군국기무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제상의 중요한 개혁내용은 종래 미(米), 대두(大豆), 면포마(綿布麻) 등 현물세로 납부되던 인두세와 잡세가 1894년 이후부터 금납세(金納稅)로 개정되었다. 1895년에는 탁지부관제가 제정 공포되어 탁지부대신이 재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으며 동년 관세사(管稅司)가 설치된 것은 이미 살펴 본 것이다.

이와같은 봉건적 조세체계는 1905년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면에서 조세법규의 개폐 및 제정으로 조세체계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국가재정 개정과 지방재정의 분화를 가져온 재정개혁은 다양성과 독립성을 지닌 지방재정의 성립기원을 의미하고 있다. 1906년 이전의 한말은 재정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1906년 지방세규칙의 제정공포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분화를 예시하였고 1909년 지방비법의 탄생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세출입은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며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끝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경상과 임시의 2부로 구별하였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 부 대신은 9월말까지 탁지부 대신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청구서를 제출하며 탁지부 대신은 10월말까지 정부 총예산안을 편성하여 각 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기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1895년(을미년) 회계연도부터 세입,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

갑오경장시의 재정개혁은 전통적 봉건 재정으로부터 근대재정으로의 전환점을

이룩하는데 획기적 개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개혁은 침략의 야망을 품은 일제의 강압적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석련사(石蓮寺)

• 所在地: 洪城郡 龜頂面 五鳳里 鳳枝部落
석련사의 절 이름은 백월산 서쪽 능선에 있는 연꽃송이 같은 바위 무더기와 인연이 있어 따온 이름이라한다.

백월사가 아랫 절이고 석련사가 윗 절이라고 그곳 사람들은 칭한다. 또한 셋가시 절이라고도 부른다. 서산통 국도따라 차를 타고 가다 구항면 소재지에서 내려 4km 정도 가면 경사가 심한 시멘트 포장농로를 따라 500m미터쯤 오른 백월산 중턱에 있다.

원래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건너편에 있었는데 연안이씨들의 세도에 밀려 현 위치로 이전했다.

① 석련사의 전설

나옹(懶翁: 공민왕때의 왕사 혜근(惠勤) 1300~1376)이 이 절에 와서 머물렀던 어느날 꿈에 백월산 낙맥에 땃방석만한 원반석이 있는데 그 돌이 큰 연꽃으로 변하여 솟아 올랐단다.

돌이 연꽃으로 화하는 기이한 꿈이 나옹화상의 영대(靈臺)에 비쳤으므로 절 이름을 석련사라 했다고 전한다.

그 돌은 석련사에서 백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있다. 영낙없는 연꽃 송이다.

석련사 요사채에 무염암(無染庵)이란 현판이 와 있는 것으로 보아 묘지로 둔갑한 사찰은 무염암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석련사의 창건 시기

석련사의 연혁이 없으므로 어느때에 절이 창건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기록상 백월산에 처음 창건된 사찰이 산혜암(신라 무념국사 창건이라고도 함)으로 고려 후기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석련사에 관계가 있는 나옹화상의 꿈이라면 1358년 이후의 일일것이다. 나옹화상이 중국에서 귀국한 해가 1358년이고 그가 왕사로 취임하여 바빴던 시기가 1371년이니까 석련사를 다녀간 시기는 1358-1371년 사이가 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 徐京保禪師詩碑



이 절에 와서 유숙했을때 현몽했다니까 1360-1370년 이전에 이미 이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지의 말에 의하면 이 절은 서북쪽에 있는 절이 묘지로 되면서 옮겨 졌다고 한다. 요사채로 되어 있는 무염암(無染庵) 간판이 그곳에서 왔다한다. 연안이씨들도 그곳에 묘를 쓴 뒤로 폭삭 망했다하니 아룀한 생각이 든다.

오랜 고찰이 퇴락된 모습을 보니 마음과 발길이 무겁기만 하다.



▲ 大雄殿

- 대웅전: 전면 5칸
측면 2칸 34평
팔작개와지붕
- 불 상: 석가여래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 요사채: 전면 3칸, 측면 2칸, 14평
대웅전과 붙여 지어짐
- 중건년대: 1983년
- 주 지: 법호 현수, 이름 나정욱
- 신도수: 150명

□ 백월사(白月寺)

• 所在地: 洪城郡 龜項面 五鳳里 鳳枝部落
홍성에서 버스를 타고 서산행 국도를 따라가다 구항면 소재지에서 내려 비포장 농로를 따라 백월산을 바라보고 4km쯤 가면 석련사와 백월사 입구 표식이 있다.

여기에서 100m쯤 북쪽길 따라 건다보

면 숲속에 초라하게 서 있는 사찰이 바로 백월사(白月寺)이다.

▼ 大雄殿



18년전에 창건했다는 암자인데 교통도 불편하고, 신도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 손대지 못하는 모양이다.

백월산을 등지고 풍치도 좋고 약수 또한 일품이고 불도의 수양 도장으로서는 제격인것 같다.

- 대웅전: 전면 2칸
측면 2칸 8평 팔작개와지붕
- 불 상: 석가여래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 요사채: 평옥 함석지붕 12평
- 주 지: 박유홍
- 신도수: 50명



▲ 요사채

□ 영보사(永寶寺)

• 所在地: 洪城郡 龜項面 支井里 支石部落
홍성에서 21호 국도따라 버스를 타고

광천가는 도중 지정리에서 내려 지식부락을 물어 3km쯤 비포장 농로를 타고 가노라면 면소재지로 가는 길과 영보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여기에 영보사 입구 1000m 표시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어 절 밑에까지 소형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



▲永寶寺

원래는 구절암(九節庵)이던 것을 20년 전(1973)에 중창과 동시 영보사(永寶寺)로 개칭했다한다. 대웅전도 일반 평옥 함석집에다 부처님을 모셨다.

재정이 여의치 못해 보수도 못했다지만, 노력 부족인 것 같고 쇠락한 사찰의 일면을 보여주는 조계종계 사찰이다. 불심 깊은 많은 손길이 답지하여 중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터라 한다. 그 증거로 백제중기의 개와가 산재되어 있고, 이씨조선 중엽의 개와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창건했다가 퇴락하고 이씨조선 중엽에 다시 중건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기록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요사채 뒷면 암벽에 마애불이 음각되어 있는데 오랜 풍우로 마모되어 그 형체만 엿보이는데 백제시대의 기법이라 한다.

어쨌건 古刹의 터였음만은 틀림없다.

마애불 암벽 옆 암벽 사이에서 석간수가 나오는데 아무리 가뭄때에도 계속해서 분출한다고 한다. 보개산 정상에 가까운 고지대에 석간수가 솟는다는 것이 신

기하다.

- 대웅전: 전면 3칸
측면 2칸 12평 함석지붕
- 불 상: 석가여래상(철불), 관세음보살상, 아미타불상
- 요사채: 8칸 함석평옥
- 주 지: 범명 性旭, 속명 강재현
- 신도수: 150명

□ 청광사(靑光寺)

•所在地: 洪城郡 龜頂面 靑光里 小盤部落
홍성에서 국도 21호선을 따라 5km지점인 청광리에서 하차하면 동편에 우뚝 솟아있는 청광산이 건네다 보이고, 그 밑에 장항선 철길이 보인다. 그 철길 윗쪽에 파아란 지붕이 보이는 것이 청광사(靑光寺)다. 군지 망실 사찰란을 보면 청광사가 기록되어 있다.

전(傳)하는 말로는 백제시대에 있었다 하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

옛 사찰터에 현 주지 안분례 보살님이 18년전(1975)에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태고종 계열 사찰이다.

- 대웅전: 전면 3칸
측면 1.5칸 15평 함석평옥
- 불 상: 석가여래상, 미륵보살상
관세음보살상
- 요사채: 20평 함석평옥
- 주 지: 범명 대덕화, 속명 안분례
- 신도수: 300명



▲요사채



7집의 계속

崔瑩將軍, 成三問先生 生家마을

田 玉 鎮

■ 순 서 ■

○ 成三問先生 直系譜略

○ 遺 蹟

(1) 生家址

(2) 魯恩壇

- 成三問先生の 神主發見
- 恐懼의 奉安構想
- 神輿遷奉
- 嚴氏家門의 陰節
- 成三問先生 神主遷奉記 및 解説

● 成三問先生 直系譜略

-個別行狀略說-

■ 六世

石瑑(석용: 成三問先生の 曾祖父)

字는 自玉. 號는 檜谷. 1352年(高麗恭愍王元年) 壬辰에 出生하여 書經無逸篇(王命)을 씀. 密直司知申事, 成均館生員, 朝鮮朝開國原從功臣. 江原, 京畿, 開城, 全羅觀察使, 司憲府大司憲, 資憲大夫寶文閣大提學. 1403年(太宗3年) 癸未 4月 26日 別世(52歲)

墓는 連山 漢陽村東便 또는 坡州 坡平山에 있다하나 確實하지 않으므로 昌寧 成氏 門中에서 坡平山에 設壇하고 祭祀한다. 配位는 光州金氏로 著作成利의 따님이며, 集賢殿大提學 章榮公 植의 孫女이다. 1428年(世宗 10年) 戊申에 別世하셨다. 夫君과 함께 設壇하고 祭祀한다.

■ 七世

達生(달생): 成三問先生の 祖父

字는 孝伯. 1376年(禡王 2年) 丙辰에 出生.

1390年(恭讓王 2年) 庚午 生員試(15才) 合格. 太宗이 世子가 되자 好男兒라 하여 護軍에 超授되었다. 1402年(太宗 2年) 壬午에 武科第 一等으로 大護軍에 任命된 다음 興德鎮兵馬使로 1408年(太宗 8年) 戊子에 倭寇를 擊退한 功으로 御馬下賜가 되었고, 1410年(太宗 10年) 庚寅 武科重試에 第二等으로 及第, 判禮賓寺事에 任命.

1413年(太宗 13年) 癸巳 星州牧使, 鏡城節制使.

1416年(太宗 16年) 丙申, 中軍同知 摠制, 全羅道觀察使兼兵馬都節制使.

1420年(世宗 2年) 庚子, 慶尙右軍道

水軍都按撫處置使.

1422年(世宗 4年) 壬寅, 左軍摠制, 資憲大夫平安道都觀察使 1425年(世宗 7年) 乙巳, 平安道都節制使

1427年(世宗 9年) 丁未, 工曹判書, 1430年(世宗 12年) 庚戌咸吉道兵馬都節制使, 1435年(世宗 17年) 乙卯, 知中樞院事崇祿大夫判中樞院事로 昇進되었는데 1444年(世宗 26年 甲子, 4月 10日 享年 69歲) 淸州, 椒永에 世宗大王을 扈從하였다가 갑자기 別世하였다. 諡號는 襄惠라 하였다.

配位는 貞敬夫人 豐壤趙氏로 府院君 云介의 따님이다.

墓는 坡州郡 東面 金洞 坡平山에 있는데 四角의 上下墳인바 위가 婦人 墓이고, 아래가 夫君의 墓이다.

■八世

勝(승): 成三問先生의 父

號는 赤谷, 武科에 及第로 兼司僕에 任命되었고, 여러번 遷職한 후 大護軍에 除授.

1440(世宗 22年) 4月 僉知中樞院事, 同年 7月, 慶尙道兵馬節制使.

1442(世宗 24年) 2月 起復(喪中에 벼슬을 하는 일)되어 昌盛鎮僉節制使兼 都護府使에 任命되었다.

※發令이 되자 公은 上疏하기를 “臣은 이미 賊을 막을 만한 재주가 없고, 또 國事に 큰 關係할만한 位置에 있는 몸도 아닌데 起復의 命을 받으니 두렵고 조심스러워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臣은 남쪽지방에 부임하여 慈親의 臨終을 하지못하여 哀痛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이제 다시 起復하여 喪制를 마치지 못한다면 이는 生前이나 死後에도 어머니에 대하여 不孝한 짓이니 어찌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과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으리오.

바라옵건데 聖上께서는 臣의 起復하

라는 命令을 거두시어 喪制의 禮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아들된 道理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하였다.

그러나, 世宗大王은 允許하지 않았다.

1446(世宗 28年) 9月 中樞院副使로 中國에 가서 中國聖節을 賀禮하고 돌아온 뒤 都鎮撫使로 除授되었다.

1448(世宗 30年) 7月에 慶尙右道處置使로 任命되었다가 1450(世宗 32) 2月에 왕이 昇遐하고, 1451年 文宗이 즉위한 후, 10月에 다시 副使로 中國에 가서 正廟를 賀禮하고 2月에 還國하여 義州牧使로 赴任하였다.

이때 軍官別侍衛 吳子慶이 國喪(世宗大王喪)을 무릅쓰고 옷을 세탁한다는 핑계로 官婢를 個人 종으로 부렸다. 이事實을 들은 公은 大怒하여 吳子慶을 拷問하였는데 吳子慶은 매에 못이겨 6일만에 죽었다. 그런 緣由로 破職의 危機에 몰렸는데 安平大君(世宗의 세째 아들 名塔)이 上啓하여 告身帖(조선조때 관리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던 사령장)과 科田(벼슬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을 되물려 받았다.

世宗의 뒤를 이어받은 文宗도 1452(文宗2年) 5月에 昇遐하니 뒤를 이어 端宗(名弘曄)이 卽位하였다. 端宗의 叔父인 首陽大君(世宗大王의 둘째 아들: 名蹂)이 實權을 掌握하고 國政全般을 흔들고 있다가 끝내는 逆臣들과 謀議 끝에 1455(端宗2, 乙亥)年 潤 6月에 禪位하여 首陽大君이 王位를 繼承하니 이가 곧 世祖이다.

이에 앞서 王位爭奪을 爲하여 1454(端宗卽位元年 = 12歲) 忠臣 金宗瑞, 皇甫仁을 죽이고 安平大君(塔)父子를 江華에 押置한 후 軍權, 國事の 重大한 實權을 總括하고, 1454年 10月에 安平大君을 賜死하고 11月에 趙遂良 등의 忠臣들을 死刑하였다.

1457年 6月(世祖2年)에 上王(端宗)

이라 推尊하였던 端宗을 魯山君으로 降位하여 寧越에 流配, 同年 10월에 錦城大君(世宗의 여섯째 아들: 名璵)을 賜死하고 魯山君(端宗)을 自殺케 하는등 王權確立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극비리에 進行되었기때문에 外職에 있던 公으로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었다.

公은 1453(端宗元年) 10月, 忠淸道水軍都按撫處置使로 在任中 訓練都監으로 昇進되어 入直하였다가 端宗의 禪位事實을 알게 되었다. 公은 承政院에 在職中인 아들 成三問에게 종을 보내어 禪位에 關한 內譯을 물어 보았으나, 成三問은 直答을 못하고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뒷간(便所)에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크게 한숨을 쉬고난 뒤

“일은 끝장 났다.”

라고만 하였다. 심부름을 간 종(僕)은 그 상황대로만 公에게 告하였다. 이 말을 들은 公은 바로 말(馬)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방에 들어가 한숨만 크게 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가족들의 문안도 일체 거절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으나 다만 아들 삼문(三問)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담화했다한다.

1455(世祖元年)年 7月, 同知中樞院事에 除授되고 1456年(世祖 2年) 3月 知中樞院事兼都摠府摠營에 陞進되었다.

1456(世祖 2年 丙子)年 中國 明나라 詔使 尹鳳五를 招請하여 世祖는 큰잔치를 벌이기로 場所를 昌德宮宴會場에 定하고 準備를 盛大히 하였다.

한편, 端宗復位를 計劃하고 있는 成三問, 朴彭年을 中心으로 한 集賢殿學者들과 成三問 아버지 成勝, 朴彭年 아버지 朴仲林이 그 자리에서 舉事하기로 정하고 雲劍(연회자리에 칼을 들고 서있는 장수)은 成三問의 아버지 成勝과 俞應孚가 맡아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世祖(首陽大君)의 목을 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奸臣 韓明澮의 進言으로 그 잔치자리에 雲劍을 廢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舉事計劃이 失敗가 되자 共謀하였던 金瑔은 장인 鄭昌孫과 함께 그 이튿날 아침 일찍 世祖에게 그 事實을 密告하므로 舉事計劃이 모두 發覺되어 6月 8日 아들 三問과 함께 斬刑 당했다.

●墓: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山一番地에 그의 妻 朴氏와 함께 雙墳으로 모셔졌다. 床石前面에 贈贊成行都摠府都摠管昌寧公勝之墓 贈貞敬夫人竹山朴氏附左라고 記錄되었다.

●昌寧成氏族譜의 記錄을 參考하면 海東野言에 露梁津 南쪽에 4개의 무덤이 있는데 死六臣墓라고 傳하고 있으며, 成氏의 한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成摠管墓라고 傳해지고 있다.

藥泉集에 成氏의 무덤이 둘이라는 傳說은 根據가 있다. 權某貴人이 漢江가에 別莊을 짓고 그 근처에 있는 墓碣과 무덤을 없애고 庭園을 造成하였다. 그러나 權某貴人이 망하자 뜻있는 사람들이 옛 墓碣을 찾아 세웠으나 또 하나는 찾지 못하였으므로 현재는 成氏之墓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다.

1692年(肅宗 18) 3월에 洪州에 사는 生員 金振南의 上疏에 「成勝의 墓가 本州의 魯恩洞에 있는바 옛집과 가까워 몇 리밖에 되지 않으며, 成三問의 妻 역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成勝父子의 家屋이 全部 籍沒되어 官에 들어갔으며 本道連山縣에 있던 成家의 土地와 奴婢가 現在 忠勤府에 所屬되어 있습니다. 듣는 바로는 그 종들이 一年에 단번씩 招魂하여 設奠한다 하옵니다.

死六臣이 이미 復官되었으니 成勝에게 差別두는것은 不當하오며 그 土地와 奴婢를 還給하여 遺墓를 守護하도록 하옵소서.」 하였으므로 肅宗은 該當府處로 하여금 論議하여 處理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禮曹에서는 成家의 土地는 이제 마

땅히 내주어야 하며 奴婢에 대하여는 根據文書가 없으니 連山縣에 있는 忠勤府의 奴婢를 특별히 떼어 주는것이 좋겠다 하여 土地와 奴婢를 되받았다.

1725(英祖元年)年 3月 洪州의 幼學 金斗麟의 上疏에 「本邑에 魯恩洞書院이 있어 死六臣의 位牌를 모시고 祭享하고 있습니다. 成三問의 집이 아직 옆에 남아 있으며, 그의 親父인 成勝과 그의 妻 무덤도 함께 있습니다.

三問의 집에 代代로 傳해오던 田畓 12結이 連山에 있었던바 忠勤府에 籍沒되었는데 先朝께서 다시 돌려 주고 免稅토록 措置된 바 있으나 작년부터 면세된 租稅를 내라고 督促하고 있으니 護曹로 하여금 稟處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1784年(正祖 8)年 潤3月에 禮曹判書 嚴璫이 啓言하기를 「故忠臣 朴彭年의 父親인 吏曹判書 朴仲林과 成三問의 父親인 都摠管 成勝은 死六臣과 함께 같은날 죽었으니 忠節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朴仲林은 先朝때 이미 復官되었는데 成勝은 아직 復官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禮典에 欠闕이 아닐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正祖는 復官토록 命令하였다. 그리고 嚴璫과 成勝摠管은 元來兼職官僚이오니 朴仲林과 成勝에게 一階級 贈職을 올려 주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進言하여 贈職되었다.

• 成勝摠管公은 洪州魯恩書院別祠와 昌寧의 勿溪書院에 配享되었다.

• 配位는 贈貞敬夫人竹山朴氏 縣監朴檐의 따님이다.

■ 九世

三問先生: 重要行狀 參照

■ 十世

長子: 元(원: 成三問先生의 長子)

無后: 賢而好學

학문을 좋아했으나 일찍 죽으므로 후손이 없었다.

二子: 孟瞻(맹침)

丙子士禍가 일어나자 다섯 아우와 함께 참형으로 죽었다.

配位는 順天朴氏로 佐郎 文規의 딸이며 丙子士禍가 일어나자 判內府事 田昞의 집 종으로 예속되었다.

三子: 孟平(맹평)

丙子士禍때 다섯 형제와 함께 참화로 죽었다.

四子: 孟終(맹종)

丙子士禍때 다섯 형제와 함께 참형으로 죽었다.

五子: 憲(헌)

丙子士禍때 다섯 형제와 함께 참화로 죽었다.

六子: 澤(택)

丙子士禍때 다섯 형제와 함께 참화로 죽었다.

七子: 當年生幼兒(丙子年 出生)

丙子士禍때 다섯 형제와 함께 참화로 죽었다.

● 壹婿: 朴臨卿(박임경)

(사돈)父: 通政府使縣令, 贈參判, 順外孫子: 大有戶判 二子: 大鵬 都事

● 貳婿: 嚴(名未詳)氏 外孫嚴纘(魯恩洞居住 家屋現存)

外玄孫: 壕, 增(贈刑參)

● 參婿: 李景植無後

이상과 같이 端宗復位와 관련하여 慘禍를 입은 內譯은 다음과 같다.

■ 家族處刑內譯(가족처형내역)

• 斬刑者: 11名

成勝(父), 三問(本人), 三驄(一弟), 三顧(二弟), 三省(三弟), 孟瞻(二子), 孟平(三子), 孟終(四子), 憲(五子), 澤(六子), 當年生(七子 幼兒)

• 官奴 및 奴婢 6名

妻 延安金氏 → 官婢, 季嫂 3人 → 家

婢, 子婦 → 家婢, 三顧의 딸(當年生)

● 遺 蹟

生家址



(1) 生家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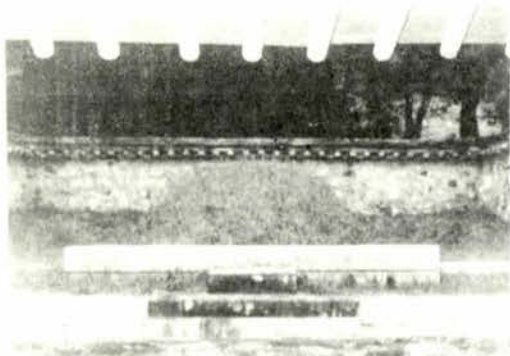
洪城郡 洪北面 魯恩里 113番地

生家は 現在近代式으로 된 집에 黃弼性 邑長이 살고 있으나, 이 집이 成三問 先生의 生家의 原形은 아니다. 記錄上으로 1725年(英祖元年) 3月에 洪州幼學 金斗麟의 上疏文에 「成三問의 집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남아 있었던 것이 틀림없으나 언제 廢家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현존 집은 그 자리에 改築한 집이다.

(參考: 英祖元年三月洪州幼學金斗麟等上疏言邑有魯恩書院享六臣成三問舊宅猶存…略…)

(2) 魯恩壇

• 成三問先生의 神主發見



魯恩壇

1456年 先生의 端宗復位(離丹書事件) 忠節事件으로 成先生을 爲始하여 아버지(勝)와 아들 5형제, 동생 3형제 등 11명이 참형되었고 官奴로 끌려간 妻 1명, 家婢 5명(季嫂3, 子婦1, 孫女1)이 있었다. 官奴로 간 先生의 婦人 延安金氏는 先生이 慘禍를 당하던 當時 밤나무로 成先生의 神主를 만들어 스스로 직면에 「成三問年戊戌生」 7字와 後面에 「如之而只少生」 6字를 써서 글자의 합계가 13字인 神主를 모시고 奴婢가 되어간 집으로 안고가서 極秘裏에 방구석에 모셔놓고 祭祀지냈다.

夫人金氏가 別世하자 先生의 親壻(첫째 사위)인 朴臨卿의 가문에서 선생의 神主를 모셔다 놓고 奉祀하다 朴氏家門도 絶孫으로 絶祠하게 되니 先生의 外玄孫 朴參贊(名:壕)의 夫婦神主와 함께 그 집의 家禮에 따라 三神主(成先生, 朴參贊夫婦)를 웅기항아리에 넣어 仁旺山에 묻었다고 宋時烈先生의 成先生神主遷奉記에 記錄되었다.

이는 丙子士禍가 있던 해로부터 216年만의 일이며 王位가 12번(世祖, 睿宗, 成宗, 燕山君,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光海君, 仁祖, 孝宗, 顯宗)이나 바뀐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늘의 뜻으로 “成先生 神主가 發見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哀悼했다.

• 恐懼의 奉安構想

尤菴 宋時烈先生은 1649年(仁祖 27, 己丑) 6月에 仁祖의 召命으로 出仕하여 1657年 8月 時政18條 上疏, 1661年(顯宗 2) 5月 儀禮始末 論製, 1669年(顯宗 10) 正月에 同姓通婚을 금하는 建議, 1672年(顯宗 13) 6月에 許積의 糾彈 등 業績을 많이 남긴 忠臣으로 領議政이었다.

註. 許蹟의 糾彈:當時 領議政으로 南人의 巨頭로서 孝宗이 죽자,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일어났다. 南人으로서 西人の 暮年說에 대하여 3年說을 主張하였으나 採擇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宋時烈의 論斥을 받아 領議政에서 中樞府事에 轉任되었다. 이 事件이 후일의 宋時烈先生과의 爭點으로 등장된다.

그러나 당시의 李氏王朝에서 錄俸을 받고 있는 官僚들은 李氏王朝에 거슬리는 일에는 아부의 근성에서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던 시기였으니 成先生의 神主問題가 다시 擧論된다면 王朝의 動向이 어떠한지 공포속에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그러나 당시 領議政인 尤菴 宋時烈先生은 剛直한 忠臣으로 이 일에 積極的으로 관여했다.

1672年(顯宗 13) 壬子 4월에 서울에 살고 있는 儒生 세사람(南宅夏, 張始顯, 呂必寬)이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내용인즉

「얼마전에 戶曹에 근무하는 書吏 嚴義龍이 와서 仁旺山 낭떠러지에서 成三問先生의 神主가 發見되었다하므로 우리들이 함께 가보았더니 仁旺山 골짜기 사이에 甕器가 있고 그중에 밤나무 神主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한 神主가 成三問先生 神主였다고 말했다.(2개는 成先生의 外玄孫인 朴參贊:名 壕의 夫婦 神主였음)」

자세히 살펴보니 외면에는 바른글자로 “姓名三字와 年戊戌生”이란 字가 있고, 안쪽(後面)에는 “如之而只少生”이란 6字가 쓰여져 있어 글자 수는 모두 13字였다고 傳한다.

이러한 말을 들은 宋時烈先生은 「우리들은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당황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世祖가 先生을 處刑한지는 수백년이 지났고 그 당시는 奸臣들의 阿附로 權力이 세상을 덮었지만 그 威勢는 땅속으로 떨어졌고, 그 영향으로 멸망하지 않을수 없으니 그 世祖의 귀신

인들 不安하지 않을소나? 반면, 또 成先生께서는 三族을 滅하는 斬刑을 당했어도 얼마 안되어 神主를 만들어 祭祀를 지내 왔으며 또 누가 이곳에 묻어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발견되었는가 슬픈 일이다.

이것은 일찌기 자기 조상을 잘모시는 忠誠스러운 사람의 所行이니 하늘이 도와준 다행한 일이라 판단되었다.

이와같이 하늘의 뜻에 따라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른다. 당시 監司로 있는 閔維重은 아직도 洪州에 옛집이 있고 그 당시 심었던 오동나무가 병없이 자라고 있으니 그곳으로 奉安하면 靈魂을 집으로 모시는 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建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故鄉인 洪州사람들께 알려졌다. 洪州사람들은 弔文을 지어가지고 와서 통곡했다. 그때 그 事實을 서울의 官僚들에게 相議했더니 전부 拒逆하므로 할 수없이 先生의 族屬들에게도 連絡하였다. 그 結果 洪州에 살고 있는 外孫 嚴纘의 집으로 우선 遷奉해드리기로 合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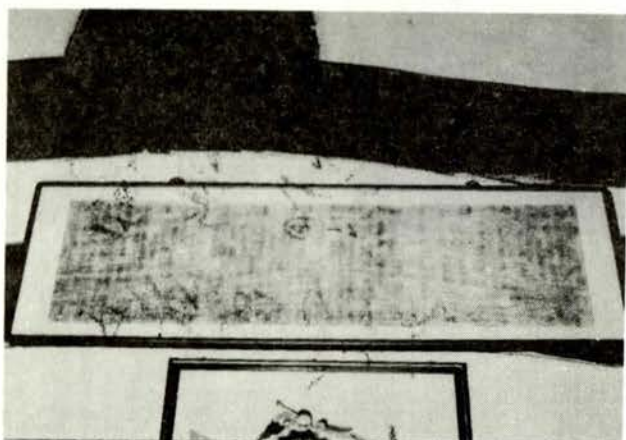
註: 外孫(彌甥) 嚴纘은 昌寧成氏族譜에도 記錄이 없으니 神主遷奉紀文中에서 記錄되어 있으므로 推測컨데 長女는 朴臨卿, 參女는 李景植으로 无后이고 二女의 記錄이 漏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二女가 嚴氏 이고, 嚴纘은 그의 아들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推測되므로 外孫이다.

• 神輿遷奉

金瑾先生은 先生의 外族이다. 洪州의 嚴氏 집안과 함께 神主를 洪州 生家が 있는 곳으로 遷奉하기로 相議하여 神輿로 仁旺山에서 遷奉하는데 兵曹判書 閔維重은 成均館學生들을 데리고 와서 한강 둑에서 護喪했고 公事관계로 隨行치 못했으며, 그 해 5월에 道에 就任한 趙氏와 金氏도 神輿 뒤를 隨行護喪했다.

당시 京畿監司 金字亨은 店路에까지
나와 護喪과 同時 각 邑에 命令하여 先
生의 神主護送에 協助토록 下令했고, 縣
令 李集成은 병든 몸으로 問喪했고 水原
府使 成俊高은 神輿가 豐潔에 이르렀을
때 祭需를 水原의 東軒에 차려놓고 祭祀
지냈으며 밖에는 천막까지 쳐놓고 하루
를 보내면서 喪弔의 禮를 다했다.

成先生 神主 遷奉記



神輿는 洪州에 도착하여 옛집 못미처
先生의 아버지 成勝總管公의 墓前에서
停輿하고 孝心을 다하는 禮를 올렸다.
이날 先生의 神輿를 出迎나온 사람들은
洪州골을 짝 메웠으며 이곳저곳에서 통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한다.

그러나 掌令의 벼슬을 지낸바 있는 趙
世煥은 後患이 두려워 參拜하지 않고 피
해버리고 弔問하지 않았다한다.

● 神主 魯恩洞 安置와 祭享

先生의 神主는 仁旺山에서 發見된지
수개월(4월~7월)만에 외손자인 魯恩洞
嚴繼의 집으로 安置하게 되었다.

이로서 遷奉行事を 마치고 그 날 丁卯
大祭를 지냈는데

○初獻官에는 洪州牧使 李遲

○亞獻官에는 沔川郡守 閔??

○終獻官에는 掌令 趙??가 했다 그리
고 여러 군수들과 宰相 또는 諸學生들은
大廳에서 업드려 절하고 슬퍼했으니 이
는 누가 시킨것도 아니요, 알린것도 아
닌데 온 백성들이 슬퍼하니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라고 尤庵 宋時烈先生은 感
懷를 느낀다고 傳했다.

● 嚴氏家門의 陰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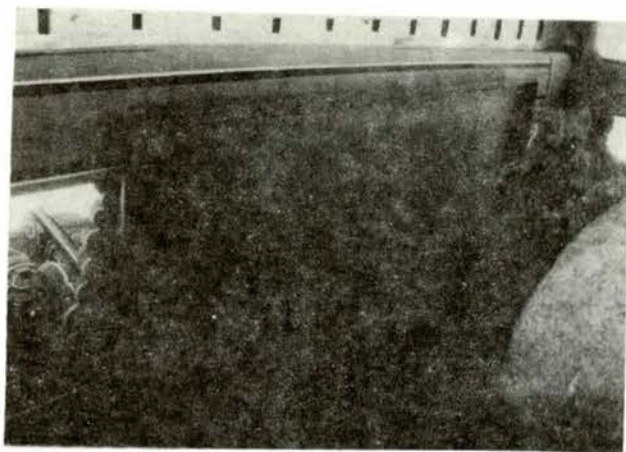
1455年(端宗 3) 6월에
首陽大君은 강제로 단종에
게 禪位를 받아 世祖가 된
다. 1457年(世祖 3) 端宗
을 魯山君으로 降封하여 江
原道 寧越로 流配를 했다가
錦城大君의 端宗復位 事件
이 發覺되어 魯山君인 端宗
은 다시 庶人이 되어 그해
12월 24日 寧越에서 죽음을
맞았다.

당시의 狀況을 살펴볼 때
이와같이 惡辣한 世祖의 權
世앞에 처참히 昇遐한 端宗
의 屍身을 가 볼 사람도 없고 거들 사람
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寧越의 戶長
이었던 嚴興道는 혼자 가서 痛哭하고 집
에 先祖를 위하여 準備했던 棺을 가지고
와서 염습한 후 葬禮를 치르고 後患이
두려워 아들과 함께 逃走하여 隱身하여
살아왔다. 이 무덤이 지금의 魯陵이며
列聖과 함께 祭祀도 지내게 되었다. 그
러나 寧越의 戶長인 嚴興道는 自己의 榮
光도 벼슬도 다 버리고 忠節을 다했으니
참으로 忠臣中の 忠臣이다.

그러므로 後日 宋時烈先生의 上疏로
嚴興道에게 工曹判書의 벼슬을 追敘하
고 祭文까지 下賜하였다. 지금 成先生의
神主가 仁旺山에서 당시 戶曹書吏 嚴義
龍이 발견하여 다시 嚴繼의 집으로 돌아
왔으니 이것이 무슨 因緣으로 그러한지
怪異하게 느껴진다.

●成先生神主 遷奉記및 解説 (성삼문선생 신주 옮겨모신 기록)

成先生 神主 遷奉記



今 上壬子(1672)四月 日京中儒士南宅夏張始顯呂必寬三人書來曰某月日戶曹書吏嚴義龍來告成某神主在仁旺山崩崖聞生等驚且異奔往視之崩崖亂石間有瓮器其中有三箇栗主其一果成先生也.

지금 상왕을 모시고 있는 임자년 사월 몇일날 서울에 있는 선비 남택하, 장시현, 여필관 세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모월모일 호조(戶曹)에 근무하는 서리(書吏) 엄의룡(嚴義龍)이 와서 인왕산 낭떠러지에 성삼문선생 신주가 발견되었다하여 우리들이 놀라고 괴상히 생각하여 바빠 달려 그곳 인왕산 낭떠러지에 가보니 골짜기 사이에 웅기가 있고, 그중에 밤나무 신주 세개가 있는데 그중 한개가 성삼문선생 신주였다고 말한다.

拂拭埃藓而蕃之外面直書姓名三字及年戊戌生四字陷中如之而只少生字合內外十三字矣

지저분한 띠끌과 이끼 낀 것등을 다 닦아버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외면에는 바른글씨로 성명삼자와 년무술생 녉자

가 안쪽으로 “여지이지소생(如之而只少生)”이란 다섯글자를 합하여 글자는 모두 13자였다.

前面直書- 成三問年戊戌生…陷中(內面) 如之而只少生…字合十三字…

生等心神悚然遂展拜而致禮焉其二即先生外孫參贊朴壕夫婦也其所題則一如家禮之式矣

우리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드디어 함께 절하고 예를 다했다. 나머지 두 신주는 외가의 자손인 참찬(參贊) 벼슬을 했든 박호(朴壕)의 부부 신주였다. 이와 같이 한것은 한결같이 그

집의 가례에 따른 것이다.

生等不知如何處之還以安置于舊處未知何以處之而得其宜也余不覺愴歎曰今去于世祖丙子蓋數百年雖其顯揚於當時者無不聲沉響滅其鬼不靈矣況先生流刑慘禍之餘誰作是主誰奉祭祀又誰埋安而今乃出現耶.

우리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길이 없어 그대로 있던곳에 안치해드리는 것이 좋은것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슬픈 일이다. 세조가 선생을 처형했던 병자년(1456)도 수백년이 지났다. 비록 그 당시는 권력을 떨쳤으나 위세는 땅속으로 떨어졌고, 그 영향은 멸망하지 않을수 없으니 그 귀신인들 불안하지 않을소냐! 하물며 선생께서는 삼죽을 멸하는 참형을 당하신지 얼마만에 누가 이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왔으며 또 누가 편안히 묻어 두었다가 지금에야 발견이 되었는가!

以禮則親已盡而當祧久矣然以先生壯節

高義當百世祀之而其節幾年于茲矣今茲之事蓋亦天誘嚴吏之衷而有與寄幸矣

이러한 일인즉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껏 다한 사람이 별도로 묘(廟)를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준지 오랜듯 싶다.

위낙 선생의 장렬한 절개와 높으신 의절은 당연히 몇백년이고 제사 받아야 마땅한 일인진데 이곳에서 몇년이나 계셨는지 알 수 없는일이다. 이 일은 하늘이 도와 주시어 충성스러운 사람의 소행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夫天既啓之而人又埋之豈其所忍曾回閔監司維重聞先生舊宅尚亦洪州魯恩洞當時庭木亦且無恙云今始奉安于此則禮所謂神返室堂者雖缺於始而得行於今矣

“하늘에서 이미 공개했던 일을 사람의 손으로 다시 물었으니 어찌 참으시고 참으시다 마지막에 돌아오셨나이까? 감사(監司)로 있던 민유중(閔維重)이 들은 즉 선생의 옛집이 아직도 홍주 노은동(현재: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 있고 그 당시에 심었던 나무(오동나무)가 아직 병없이 자라고 있으니 그곳으로 봉안(모셔 드림)하면 영혼을 집으로 모시는 예에 어긋나지 않을것이고 비록 처음에는 결례(缺禮)를 했으나 지금이라도 받들어 모시는 예를 다한 셈이다.” 라고 말했다.

既以是相報而又以告於鄉里士友則亦有來見南呂書辭而感涕者矣既以南呂諸人幸不以愚言爲悖即以通于先生族屬之在洪者而姑奉以神輿安置先生彌甥嚴纘家於是摺紳章甫爭就展拜而前掌令趙世煥亦外出也

이런일을 서로 전하고 고향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슬픈 글(南呂書辭)들을 지어 가지고 와서 눈물 흘리며 슬퍼했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南呂諸人)에게 그런말을 상의했더니 거역하므로 할 수 없이 홍주에 사는 선생의 족속(族屬)들에

게 연락하여 외손자(彌甥) 엄찬(嚴纘)의 집으로 신여(神輿:신령이 타는 수레)에 모셔오니 비로써 관리에 다니는 사람(摺紳)들과 유생(章甫)들이 서로 다투어 참배하러 왔었으나 전장령(前掌令) 벼슬한 조세환(趙世煥)은 참배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幼學金瑾先生其外族也自洪相與嚴氏家謀奉以南歸兵曹判書閔公鼎重將率館學諸生拜送于江頭適有公事而不果焉五月癸亥就道趙與金隨行焉

유학(벼슬하지 않은 보통선비) 김근(金瑾)선생은 외척되는 사람이다. 홍주에서 엄씨집까지 와서 제사지내고 남쪽으로 갔고, 병조판서 민정중(閔鼎重)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데리고 와서 서울 한강둑에서 송신(送神)했고 마침 공무에 바빠서 못왔다가 오월계해일에 조씨와 김씨를 데리고 다녀갔다.

先是京畿監司金字亨行下店路各邑使之護送惟振威縣令李集成有疾外無不致其誠敬而水原府使成後高則至於豐潔羞酌安侑于東軒又盛設借帳于野外迎送皆遠出矣

경기감사 김우형(金字亨)은 점로(店路)까지와서 각 읍에 명령하여 선생의 신주 호송하는데 잘하도록 했고, 현령이집성(李集成)은 병이 있었으나 정성을 다했고 수원부사 성후설(成後高)은 신여(神輿)가 풍결에 이르렀을때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 지냈으며 또 밖에 포장을 쳐놓고 호송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未至舊宅五里許先生星考摠管公墓在路傍亦與先生相殉者也遂停神輿于其簣以順先生之孝心焉蓋是日出迎于路者傾州咽街遂入安于廳事而面南于址壁下

옛집 오리(五里) 못미쳐서 선생의 아버지(成勝) 총관공 묘가 길가에 있으며 선생과 함께 단종복위사건으로 참화를

당하신 분이시다. 그 묘앞에 상여를 멈추고 선생의 효심(孝心)을 다하는 예(禮)를 올렸다. 이날 선생의 신여(神輿)를 출영(出迎)하기 위하여 모인 주(州) 사람들은 거리를 꼭 메웠으며 드디어 옛집(廳事:사저의 뜰, 마루) 남향벽 아래에 평안히 모시게 되었다.

蓋閔監司曾欲入石于其前面而先加修葺故樑棟不改而塗墍革新似亦有待焉

대개 민감사가 일찍부터 먼저 터를 닦아 비를 세운다음 비각(碑閣)까지 만들어 졌으므로 다시 비각은 고칠 필요가 없었고, 흙벽돌 구어 세롭게 단장하니 이것도 벌써부터 하고져 했던 일이다.

乃以其日丁卯大祭而本州牧李候暹初獻泃川守閔侯○○亦以外裔亞獻而終獻則趙掌令也其餘守宰諸生皆俯伏聽位各致愴慟嗚呼是孰使之然哉不過日不期然而然矣余於是別有所感焉

이에 그날 정묘대제(丁卯大祭)를 지냈는데 홍주목사 이섬(李暹)이 초헌관을 했고, 면천군수 민○○가 역시 외척되는 분이라 아헌관을 했으며 종헌관은 조 장령(掌令:사헌부의 종4품의 관직)이 했다.

그 나머지 군수들과 재상 그리고 유생들은 대청에 엎드려 슬퍼하며 그 의를 다했으니 슬프도다! 이 누가 시킨 짓이 이러했으며 하루도 지나지 않았건만 시키지도 알리지도 않은것이 이러한가!

나는 여기에서 별도의 감회를 느꼈다.

當 魯陵之遇變于寧越也暴露於路傍而人莫敢收視有郡吏嚴興道獨往臨哭取棺而歛葬焉至今所謂君主塚而諸列聖之修祀者即此也

지금 노릉(魯陵:魯山郡 宋陵也)의 경우와 같이 영월에서 변고를 당할때 단종이 길가에서 세조(단종의 삼촌숙부)한

데 숙엄을 당했어도 무서워서 가 볼수도 없었다.

그 당시 영월에서 호장(戶長)벼슬을 하던 엄흥도(嚴興道)는 혼자 가서 통곡하고 집에 있던 관(棺)을 가지고 가서 엄습한뒤 장사를 치르고 후환이 두려워 아들과 함께 도망하여 은신하여 살아왔다. 이것이 지금의 왕릉(君主塚) 즉 노릉이며 모든 열성(列聖)과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故陰崖李先生記之曰自古忠烈之士不必出於世胄華族當時販君規利必置其君於淫禍然後快於心者其視嚴君爲如何載而村婦里童至今快鬱不平不知甚言之出於口果知人性之難誣也余常於筵席請褒錄興道矣

그런 연고로 음애이선생(陰崖李稹...燕山君때의 敍述한 詩文集...1754年(英祖 30에 刊行)의 문집을 보면 옛부터 충열의 충신은 세상을 주름잡는 화려한 집안(世胄華族)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 당시에 이(利)에만 눈이 어두워 인군(君)을 팔아 먹는 역적(逆賊)들은 반듯이 인군(君)을 모략과 중상으로 음화(淫禍)를 입혀야만 마음이 쾌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 엄한인군(嚴君)이 그것도 모르고 그리했을고...

마을 부인들과 동리 아해들이 지금도 울적한 마음을 어쩔줄 모르고 심한 말이 나오는 줄도 모르는체 과연 사람의 성품이 이와같이 간악하다고 탄식들을 한다. 내가 이와같은 심정으로 임금님한테 자리 펴놓고 엄흥도(嚴興道)에게 상 줄것을 상소하여 공조참판(工曹參判)의 벼슬이 추서되었고, 제문(祭文)도 하사되었다.

今先生神主又見得於嚴義龍而又以權奉嚴氏之堂是皆寧越籍也是亦可異焉是不知是魯陵君臣之幸歟抑亦諸嚴之幸歟

이제 선생의 신주(神主)가 인왕산기슭에서 엄의룡(嚴義龍)이 발견하여 또 다시 엄씨(嚴氏)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다 영월의 단종때문이었으니 또한 특이한 일이 아닌가!

단종과 성삼문선생의 군신지의로 인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인지 또는 엄씨가문에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此因朴參贊從玄之在尼山者聞丙子禍作曰先生夫人金氏自寫其神主抱負於弩屬處而祭之及其沒而其主歸於參贊家參贊亦嗣絕而竝埋云其言皆徵矣

박참찬(參贊:조선시대 의정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 좌우 참찬이 있었음) 종현(從玄)의 집에 있다가 여승(女僧)이 되어 절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니 병자년 참화때 선생의 부인 김씨가 그 신주를 만들어 써서 노예가 되어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제사 지냈는데 그 부인이 죽어 신주를 참찬(參贊)의 집으로 모셨으나, 참찬도 역시 절손(絶孫:嗣絶)되어 함께 묻었다한다. 그러나 그 말은 다 증거할만한 말들이다.

外諸生又將作廟于宅傍竝享當時同志朴河李柳兪五先生蓋以爲世祖大王常有成某等萬世忠臣之教故河先生之祠建于善山朴先生之碑入于懷德而朝廷無禁焉矣

그 부인 묘가 지금 노은동(현: 홍성, 홍북, 노은)에 있으나 제사를 못지내고 있으니 이또한 슬픈 일이다. 지방선비들이 그 집 옆에 사당을 지어놓고 함께 제사지냈다. 그때 당시 함께 뜻을 했던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之),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의 다섯 선생 등도 다 세조대왕한테 참화를 입은 만세의 충신으로써 후세교육에 큰 자료가 되므로 하선생의 사당은 선산에 짓고 박선생 비는 회덕에 세웠어도 조정

에서 금하지 않았다.

閔監司所伐之石已致于宅前而未及磨刻今祠與石二沒州牧李侯及沔川閔守將終始經紀云是歲七月日恩津宋時烈記

민감사(監司:조선조의 각 지방장관 정2품관직, 외직으로 관찰사라고도 한다)가 돌을 캐어 그 집앞에 운반해 놓은 것을 아직 갈아서 조각하지 않았고, 지금의 사당과 세워진 비석 등 두가지 역사는 홍주목사 이후(李侯) 면천군수(閔守) 민씨가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마친것으로 비각이 완성된 것이다. 이해 1672년 칠월 ○일 은진 송시열(宋時烈)은 쓰노라.

다음호에 계속...



덕명학교(德明學校)편

주 목 로

설립자 서승태(徐承台)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 “태서문화권의 탐방”을 3회에 걸쳐 발표했고, 다시 본론을 쓰게 해주신 정재범님과 허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서승태선생의 생애를 살펴보면 광천읍 상정리에서 1854년에 태어나서 한학(漢學)을 전수하셨다. 원래 성품이 곧고 굳세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여 한일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 이래 많은 애국지사들이 방성대곡(放聲大哭)하고 또는 민영환의 할복자결 등 소식을 들으며 역시 망국의 한을 풀을 길이 없어 다음해 1906년 민종식(閔宗植)이 홍산에서 기병(起兵)하여 홍주성에 이르자 서승태선생은 병오항일의병(丙午抗日義兵)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많은 군량미(軍糧米)를 제공하므로 해서 가족들까지 고된 탄압을 받아 뺄뺄이 흩어졌다고 한다.

그의 연표(年表)에 의하면 1907년 궁경(躬耕~廣川)면장에 추대되었고, 1908년 처음으로 상정리(湘井里) 본가에 덕명학당(德明學堂)을 세웠으며 신학문을 바탕으로 평소의 신념이요, 사상체계였던 삼요론(三要論), 삼력병합설(三力併合說) 그리고 자유성(自由聲) 등 스스로 만든 교재를 민족의 정신적 교본(敎本)으로 삼은 듯 하다.

그리고 만3년 후(1911) 신진리 현위치

에 교사(50평)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위하여 면장직을 사임했다고 한다. (1913) 그리고 광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는 동시에 인계한 듯하다.

그후부터는 망국의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때마침 3.1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선생은 홍성, 보령, 청양, 결성 등지의 총책으로 박원식(朴源植)외 10여명을 활동요원으로 독립선언서는 물론 자유성, 삼력병합설 등을 특히 장날을 이용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울부짖었다.

그러던 4월말경 언도와 체벌 등으로 당년 12월말 출옥은 했으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2년후의 1921년 연말에 본택에서 많은 신고 끝에 한많은 수난의 생애를 끝마치셨다. 분명히 그는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애국지사의 삶이요, 거룩한 죽음이었다.

1935년 후인들이 선생의 높은 훈도(薰陶)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덕명학교 교정에 흥학(興學)기념비를 세웠다.

해방후 광복(1945)이 되면서 많은 제자들이 조문 성묘하였으며, 특히 제자 박원식은 “선생님 덕분에 저희 제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그 결과 선생께서 몽매(夢寐)에 그리던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하고 목이 메었다고 한다.

다음 해(1946) 광복절에는 임정 요원 7~8명이 친히 광천에 와서 감사장을 드

렸으며, 다시 1947년에는 박원식의 많은 제자들이 조국과 민족교육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희생하신 높은 뜻을 기려 일농(逸農) 홍학재단을 구성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마침 6.25동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함은 자못 아쉬운 일이었다.

1967년에는 선생의 선구자적 학교설립과 진정한 민족교육에 대한 높은 뜻을 되살리고자 덕명학교 교장의 감사장을 드린 바 있다.

1992년 제73주년 3.1절을 맞아 보훈처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후손에게 추서(追敘)한 바 있다. 이것이 선생의 생애의 개요이며, 가족상황은 부인 남원 양씨(梁氏)와 아들 홍모(弘模) 딸 명모(明模)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선생의 사적(私的)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내력을 아는 분을 찾지 못했으며, 신진리 376의 이홍구씨 한 분이 생존했다고 듣고 그분을 찾아 갔으나 마침 출타중이라 뵙지 못하고 다시 정재범교장님을 뵙고 “고 서승태 애국지사의 공적사항”의 인쇄물과 기념사진을 주신 바 있다.



1. 최초의 교사(선생 자택): 광천읍 상정리 280번지

그 내용에 의하여 보완한다면, 병오 의병 당시(1906) 군량미를 의병들에게 제공한 것은 광천 부호 박기병씨의 특지로서 창고를 자진 개방하여 줌으로 의병들의 사기를 크게 돋구어 주었다고 하며 궁

경면장 7년간 재임시에도 구휼사업(救恤事業)에 힘써 적극적으로 기민(飢民)들을 구호했다고 한다.

또한 제자들도 소개 받은 바 없고, 찾아 뵙지도 못하여 덕명학교 개교 당시 발표된 격문(檄文)이랄까 성명서(聲明書) 몇 편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삼요론(三要論)

인류의 발달과 종족의 보존 그리고 인민의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한 필연적 단체 이것이 국가구성을 필요로 한다.

인류최고의 목적은 예악형정(禮樂刑政)과 헌장제도(憲章制度), 종교도덕(宗教道德)과 군사농상(軍士農商)은 다 인류의 발전을 증진하고 인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민족보존책이다. 우리나라 고유한 정신과 시대에 맞는 사상을 개발하기 위하여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역사적 정신이다.

이것은 조종(祖宗)을 존모(尊慕)하며 국가에 충애(忠愛)하는 일이다. 그런데 을사조약(1905)후 경술년 일본에게 합병이란 미명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중국의 명과 청에 대한 사대주의(思大主義)도 없지는 않았다. 자주독립의 민족성과 국가관념이 끊어짐이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민족의 역사로서는 이민족의 압박이 불가피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상무적(尙武的) 기상이다.

원래는 무력적으로 강건하고 용감민첩한 종족이었다. 실제로 수양제를 물리친

을지공(乙支公), 백만 왜병을 섬멸한 충무공(忠武公)이 계셨다. 수백년 승평쇄국(昇平鎖國)과 집권층의 이권쟁탈로 국풍민습(國風民習)이 날로 타락하고 문물교화가 부진하여 숭문(崇文)으로 실무(實武)를 천척(賤斥)하니 무도(武道)의 쇠퇴로 문약(文弱)에 빠져 결국 자위방어책 없이 드디어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을 써 온 왜구(倭寇) 일본에게 망국의 근원(近原)이 되고 그 수족이 묶이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한민족은 쇠망하였으니 어떻게 상무적 기상을 다시 배양하리오.

역사적 교육으로서 그 기초를 삼고 체육과 지육 그리고 덕육으로 망국의 한을 풀어야만 한다. 이제라도 진취적 사상과 상무적 기상으로 사람된 기성(氣性)을 발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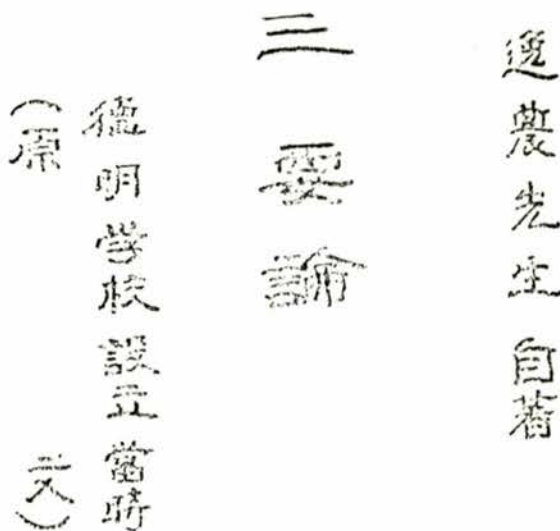
셋째: 경제적 생활능력을 기르자.

경제적으로 자주자립을 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여 생산과 소비의 원칙과 농공상 등 실업(實業)을 일으켜야만 한다. 경제적 실질 없이 종래의 허위적 문화(文華)에 빠져 실질적 사물에 등한하여 소비적 재화(財貨)만 알고 생산적 재화를 모른다면 일하기는 싫어하며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을 모른다면 오늘날과 같이 일본에게 착취(擄取)나 당하는 참상과 비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곧 망국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생활을 바로잡는 중강의 길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종족의 지위를 보존하며 민족의 기성(氣性)을 발휘하며 인민의 생활력을 증진하는데 불가결의 것이니라.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지는 자 이 삼요론(三要論)에 유의하고 충실하여 작은 섬나라 일본의 동양척식(東洋拓殖)의 찬탈(찬奪)을 정면으로 도전 그리고 박멸(撲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에 좋은 본보기로 망국한 유태국이 전세계의 상권을 쥐고 경제계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모든 방법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하고 그것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므로 성취하고자하니 이것이 곧 삼요론(三要論)의 근본바탕이 된다.

Ⅱ. 삼요론



삼력병합설(三力併合說)

자연에는 우승열패(優勝劣敗)와 강약성쇠(強弱盛衰)의 이치(理致)가 있다. 삼력자(三力者)는 근력(勤力)과 지력(智力)과 사력(死力)을 말한다.

어린이도 힘을 구비하면 성장하느니라. 천연에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력(死力)이 아닌가? 이 사력을 인하여 경쟁에 앞서가며 능욕을 수치로 아는 분발이 있게 마련이다.

우둔(愚鈍)하기를 원치 않고 현명(賢明)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천연 삼력(三力)을 양생(養生)하되 어둡고 유약(懦弱)하고 용렬하고 부패함은 각자의 색망병(色 망病)때문인데 멸망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함은 통탄할 일이다.

이 죽을사(死) 자는 영웅 호걸과 기재(奇才) 이사(異士)의 발전계급이요, 신복

(信服)하는 기초라.

죽음은 돌아감이며 혹은 죽음은 뒤의 나 즉 후세의 자기다. 거친 땅에 처한 연 후에 삶이 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한 사람의 생애에도 구사일생(九死一生)과 천신만고(千辛萬苦)가 있어야하나니 천하 만사가 근력, 지력, 사력이 병행하지 않고는 아무일도 이룰 수가 없다. 천연의 삼력(三力)을 받은 것은 당연하나 이를 양생치 못함은 올바른 교육에 힘 쓰지 못함이다.

슬프다! 교육을 바로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고금천하에 생각없이 이를 이룰 수 없다.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금수나 벌레만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死)자 한 자로 좌우되며 중정(中正)할 이유가 생긴다.

생각은 쉬지 않으며 무르익은 생각은 영명(英明)으로 통한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좋은 지위를 줄소냐 생각있는 자만이 관작을 얻고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감내할 수 있으며 세 가지 힘중 한 두 가지 생각으로 경쟁시대에 노예를 면할 수 없다.

깊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거듭 연구하여 어린이를 잘 기르고 지도하여 시국의 변천에 어찌 잘 대응하리오.

자기의 독행력만으로는 안된다고 단념하지 말고 반드시 더불어 합심 협력하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사상이 있을때에만 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높은 사상을 터득한 몇몇 군자가 3력 단합하는 대명제(大命題)를 해외 파리에서 절구했으니 곧 대한독립을 전취하고자 한 일이었다.

우리 동포의 머리와 다리, 눈과 귀가 조상의 유전과 친인척이 우리 대한강토를 아끼고 생각함이 곧 대한정신이라 하겠

다. 쉽게 행하는 자는 어찌 인간의 힘이 만유에 가지런하지 못하며 근력중에 활동력과 민첩(敏捷)함이 있고 추진력이 있으며 지력중에 융단력과 화합력이 있고 또한 판별력이 있다.

Ⅲ. 삼력병합설



사력중에 인내력과 충즉진명(忠則盡命)하는 필승력(必勝力)이 각 분자력으로 합치하는 원동력이라 할 것이며 민중의 힘을 합하는 경우는 삼력을 구비하는 정도에 따라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망녕되이 손발을 늘리는 2천만 동포가 깊이 생각한다는 정신만 가졌다면 7백만 근력 생각의 기둥이 될 것이요 또한 700만 지력이 생각의 바탕이 될 것이요, 700만 사력이 생각이 있을때 큰 적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도 생각의 삶을 한 것이며 이웃나라를 통합한 김유신도 생각으로 살았고, 왜구를 소탕한 충무공도 투철한 생각으로 살았으며 독립의 큰 공을 세운 것이 어찌 미합중국만의 것이며 철기횡행(鐵騎橫行)이 어찌 프랑스만 독점하리오.

생각할지어다, 우리 동포들이여!

자유성(自由聲)

자유는 하늘이 내려주신 천직이요, 인생의 근본 양식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잃으면 나라가 망하고 자유를 잃으면 백성

도 망하나니 문화민족은 피로써 자유를
쟁취하며 눈물로써 자유를 수호하는 신성
한 자유여 그대는 영웅이다.



IV. 자유성(自由聲): 자필인듯 추측

자유는 신천지가 도래했도다. 그럼에도
자유활동할 사상이 아직 없고 설설기는
구차한 생활을 감수(甘受)하려느냐?

깨달으라, 동포여! 일어서라
동포여! 신음을 멈추고 잠에서
깨어나라. 새로운 일월(日月)이
낭랑하게 비치며 새로운 자유의
강산이 빛나도다.

대한이란 두 자를 빼에 새기
고 남이 한 걸음 나가면 나는
열 걸음 나가며, 남이 백 걸음
나가면 나는 만 걸음 나가면 머
지않아 자유의 언덕에 오르리니
우리 동포들이여 맹성(猛省)할
지이다.

자유여! 천하에 이와 바꿀 수 있는 지보
(至寶)가 다시 있을까?

그러나 동방의 미열(迷劣)한 종족이 이
지보(至寶)임을 모르고 금은동철과 같이
지중에 묻은지 기백년에 이르니 인문이
개벽한 오늘을 맞이하여 자유의 활발한
영향이 전지구상에 가득찬 이때 귀 먹고
는 멀어... 아! 우리 총명하고 재지(才智)
한 대한동포들은 이를 등한시하여 남의
침략에 방치하니 편만한 날 있을 수 없으
며 칼이 잠잠한 날 없으니 한 번 잃은 자
유는 다시 찾기 어렵도다.

우리 동포 여러분, 자유의 귀중을 깨닫
지 못함이며 지력(智力)이 불강하여 자유
의 보배를 앉아서 잃었으니 이제는 그들
의 압제하에 정신이 쇠잔하여 자유에 기
관관능을 잃고 군배(君輩)의 정상도 가한
것이나 타고난 천명(天命)도 두렵지 않은
가! 심지기혈(心志氣血)과 외모 안색은
그들과 같으나 어찌하여 선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슬픔에 곡하지 아니하며 어버이
에 효(孝)하지 않고 자기도 동포도 사랑
하지 못하는 불감증(不感症) 그리고 불구
자(不具者)로 압박을 괴로워할 뿐....

이때가 어느때냐! 만년에 한 번인 공적

송덕(頌德) 비문(碑文)

호서중부지역은 예로부터 학문과 예절
이 갖추어진 유명한 고을이라 일컬어 왔
다. 그리고 훌륭한 선비들이 배움의 길을
일으켜 자기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농(逸農) 서(徐)선생은 성품이 곧
고 굳세며 비록 세상의 흐름에 능숙하지
는 못하였으나 마침 주민들의 공천으로
면장의 중책을 맡아 교통의 편익과 공익
증진에 힘썼고, 미풍양속에 독실(篤實)하
였으니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많은 거사와 공적을 어찌 다 기록하
랴. 대략을 들어보면 사상과 문장이 일치
하였고, 평소의 염원이 인걸(人傑)이 없
고 영재(英才)가 나지 못함은 올바른 인
간교육을 하지 못하는 연고라 하시며 노
심초사(勞心焦思)하시기 수십년이였다.
지금부터 28년전(1908) 자기 집에 학교
를 세우고 덕명(德明)이란 현판을 걸고
재덕이 뛰어난 인물들을 길러내고자 기운
이 다하도록 정성을 기울였으니 비유컨대
하루에 9만리를 난다는 큰 새를 참새가
비웃으며 기러기가 높이 나르는 그 뜻을

어찌 제비가 알리오.

그 당시 지방인사들은 고속(故俗)에 안주하는 처지였다. 선생은 홀로 의연히 매진하여 굶거나 흔들림없이 땅을 내놓고 집을 세우고 돈을 거두어 오직 학교 운영에 충당하는데 일관하였고 보수, 증축 등에 힘쓰다 만년에는 끼니가 없어도 후회하지 않고 오로지 정성과 기력을 다하여 인재교육하기 8년 졸업 5.6회에 이르러 광천공립학교가 되었다.

충명하고 준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도(世道)를 바로잡아 호서지역에 서광이 빛나고 다사로운 청명(淸明)을 밝히는 것이 선생의 지극한 일념(一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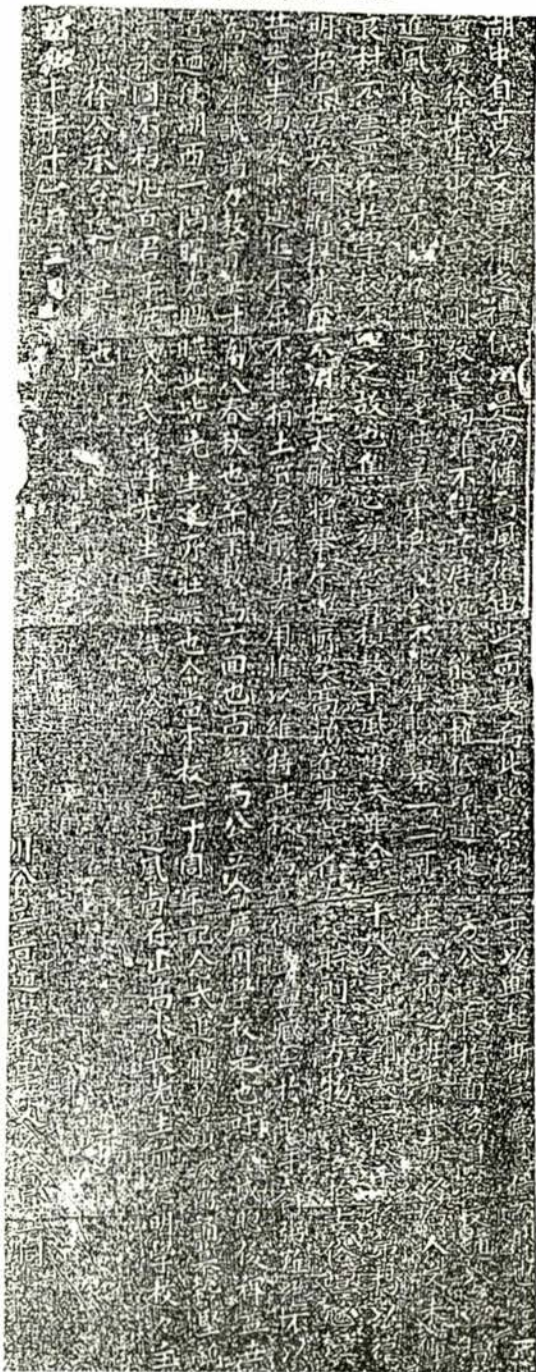
지금 본교 2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옛 공적을 추모하면서 그때의 깊은 심정을 글월로 굳게 새겨 길이 빛내고자 하며 우리 모두 그의 본보기를 따르리라.

아~ 슬프다. 선생의 추운 때 솜옷이나 주릴때 좋은 음식과 같이 후세에 끼쳐 주신 훈도(薰陶)와 유덕(遺德)이 산처럼 높고 물처럼 깊도다. 선생은 덕명학교 교주

V. 송덕(頌德) 비문(碑文)



VI. 비문(碑文) 본문



서공승태(徐公承台)이시고 일농(逸農)은 그의 호(號)시다.

1935년 11월 3일

덕명공립보통학교 학부형(교정에 세움)
회원 일동

교육하는 일은 보다 크고 영원한 필생의 사업이다. 특히 그 사제간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의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 빛나는 일이다.

이번에 실험중앙회에서 농촌교도원들의 연수교육차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를 17일 코스로 견학한 정규채 전무에게 들은 바를 간단히 소개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먼저 이번 연수교육은 실험사상 초유의 쾌거인듯 하며, 21세기를 바라보며 앞으로 실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면서 역시 과감한 개혁 그리고 의식의 근원적 전환이 절실하다.

한마디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임금노동의 사슬이 아니라 열띤 동업자들의 천국”을 실현한 현장이었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인간다운 일하면서 동시에 효율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체에 속하는 백여개 기업중 하나인 울고협동조합의 가전제품은 스페인 시장의 4/1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라고 한다. 쿠리 저자는 몬드라곤의 현대적기적을 이룩해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한 카톨릭신부의 헌신적 지도력과 새로운 사회사상의 교육적 실천에서 발원하였으니 즉 몬드라곤 성당에 부임한 신부 호세 마리아의 삶과 사상, 자본주도의 사회를 노동주도의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종교적 교육적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신선한 충격으로써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주의의 사상은 “특권계급형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력의 인간화와 경제민주화와 협동을 통하여 양심과 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는 것”이며 “소유는 그것이 공동생활에서 책임감과 능률성을 높이는 효과적 원천으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만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때, 창시자 그는 빨갱이 신부라는 별명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교육은 몬드라곤운동의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돈호세 마리아가 설립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2년간 철저한 토론을 지속했다고 한다. 그들은 지원연대조직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윤리적인 측면의 탐구 또한 활발히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VII. 초창기 간판



더욱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면서 줄인다.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충실한 선생의 전기가 출간되기를 기원하면서…….

VIII. 초창기 모표



1919년 3.1독립운동만세 장곡면 사건

김 갑 현

1) 3.1 운동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써 일명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다. 한일합방이후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義兵), 열사(烈士)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독립운동에 나서자 총독부는 강력한 무단정치(武斷政治)를 감행하여 강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한편으로는 고유문화의 말살, 경제적 지배의 철저화로 우리민족이 다시 일어날 기반을 없애려고 애썼다.

제1차 세계대전의 대세가 연합국측의 승리로 확정되자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Thomas.W.Wilson)은 강화조약의 기본조건으로 14개 조항의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이른바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니와 우리 민족도 이에 자극을 받아 독립을 바라는 기운은 높아졌다. 이리하여 일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부터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 되었다.

민족의 기수 33인은 일정통치 10년에 망국유민으로 자회(自悔)와 굴욕(屈辱) 실망에서 신음하는 겨레에게 광명과 희망, 용기를 주었으니 이것이 기미독립투쟁이다.

오인(吾人)은 자주민임을 만방에 선포한 우리 민족을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

까지 목적을 위하여 항일할 것을 선언하고 쫓기하여 적수공권으로 일병의 폭악한 총검앞에 민족의 분노는 분화구와 같이 터졌다. 태풍에 밀리는 노도와 같이 번져가는 겨레의 함성은 하늘을 메아리쳤고, 겨레의 홀리는 피는 마침내 강물을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일병의 야수와 같은 만행도 민족의 함성은 막지를 못하고 총독부의 무단정치(武斷政治)를 포기하고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감언과 이설로서 회유정책을 시도하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은 자치능력이 없는데 미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론(自決論)에 부화뇌동하고 외국선교사의 편동으로 이러한 난동을 일으켰다고 선전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조국애의 불타는 한민족의 정의와 투쟁은 세계만방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동년 3월 일제는 재빨리 무장군대 수백명을 홍성에 투입하고 가진 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등화가 관제되고 통행이 금지되고 등산이 제지되고 심지어 혼상가에 까지도 제지되었고, 회합이 금지되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총성(銃聲) 일병의 말 발굽소리는 완전히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으나 군내 각지에서 일어나는 대한독립만세의 우렁찬 함성과 봉산(峰山)에서 울리는 봉화는 끝칠줄을 모르고 계속되었고 경찰은 철야 애국동포를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동족의 손에 끌려가고 동족의 손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처절한 장면은 분노의 불길을 더한층 높여 주었다. 경찰서 후정과 홍주위문 앞 광장에는 수십개의 태형대(笞刑台)가 놓였고, 일병의 고성속에 흘러나오는 겨레의 신음하는 비명은 그날의 비참한 참상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한 선열의 참된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높이 본받아 영원히 숭앙하리라.

2) 1919년 4월 7일 기미만세사건

일본이 부당한 침략이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전통과 역사, 미풍양속의 고유문화말살,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한민족을 노예화로 만들려는 철저화로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기반을 없애려는 총독부의 무단정치를 감행하여 가혹한 탄압과 압박을 자행하였다.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이른바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을 바라는 기운이 높아져 전국토 전국민에 확산되어 우리고장에도 봉기 항거하였다.

서기 1919년 기미 4월 4일 밤, 윤형중, 윤락중, 윤이중 3형제는 광성 화계, 광성 신평리 등에서 200여 동민을 편동하여 매봉산(화계에 제일 높은 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햇불시위와 유학선의 타종과 동시에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자정까지 크게 불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월 5일 밤에는 면내 일원에 각 부락 산상에는 일제히 봉화가 울리면서 남녀노소 할 것없이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소리가 온 천지가 진동이 되도록 높이 불렀다. 4월 7일 낮에는 각 부락에서 만세를 불렀고 면사무소, 주재소를 습격 목표하여 고일봉(高聾奉), 김용제(金龍濟), 김동완(金東完), 강태삼(姜泰三), 김용숙(金容肅), 김동하(金東河), 김봉구(金奉九), 김익환(金益煥), 오경춘(吳敬春), 윤만수(尹萬水), 윤낙중

(尹樂重), 윤의석(尹宜錫), 윤형중(尹衡重), 윤익중(尹益重), 이철립(李喆林), 이화춘(李化春), 이동명(李東明), 이성근(李成根), 이문재(李文載), 이백임(李百林), 최채선(崔彩先), 최순성(崔順成), 최기석(崔奇石), 최신선(崔新先), 허천손(許千孫), 한상철(韓相喆), 이소만(李小萬), 이성중(李聖鍾) 등 도산리 위산에 300여 명이 뭉둥이, 쇠시랑, 도끼, 팽이 등을 들고 모였다. 김동하의 선창에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일제히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면장 윤상여와 직원은 급히 도망갔고, 서기 임원규가 제지하는 것을 윤낙중 수명이 구타 추출했다.

면사무소에 직원이 없는것을 격노한 김동하는 술선 출입문주를 뽑아버리고 군중에게 크게 호령하여 파괴할 것을 명령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유리창과 기물 등 닥치는대로 파괴 하였으며 김정랑, 이소만, 강태삼 등은 연돌을 뽑아 버리고 숙직실을 파괴하였다.

한상철, 윤상운, 이화춘, 윤낙중, 오경춘, 이문재, 이성중 등은 서고와 중요문서를 꺼내어 불살랐다. 면사무소를 완전 파괴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더욱 고조된 분위기속에서 윤낙중, 윤형중, 윤익중 이 선봉에선 시위군중들은 주재소로 향하여 돌격하고 유리창과 기물을 또다시 파괴하였다.

면소재지에서 각부락마다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가 끊임없이 부르는 가운데 오후늦게 일현병과 순사들이 급습하여 함부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시위 군중들은 돌을 던지며 대항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다수의 총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진압과정에서 닥치는대로 구타와 발길질, 총대를 휘두르는 일경과 헌병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닥치는대로 체포되어 면소재지에는 300여명이 손 얹고 앉게하여 선별 구금, 100여명이 홍성으로 압송되었다.

4월 8일에도 부락마다 만세! 소리가 끊

임없이 부르는 가운데 면내 남자들은 산으로 도피했다. 일경과 군인들의 수색이 시작되어 체포되는 동민들은 구두발길과 총대머리로 얻어 맞아 심한 출혈을 하면서 300여명이 체포되어 홍성으로 압송되었다.

가송리 김동정(金東正)은 고문과 악형으로 사망하였다. 윤태병(尹泰炳), 김상호(金商浩), 최석환(崔錫煥)은 체포 구금되어 10여일을 가진 악형과 고문을 당하여 일평생 신체적인 불구로 살면서 단명하였다. 네사람은 평소 김좌진장군과 막역한 교분이 있어 김좌진장군이 말타고 화계리 "개변주막(강변)"에서 자주 만나 술을 기울이면서 나라의 장래 걱정을 담소하면서 민족의 장래문제를 밤을 지새우면서 통분과 울분으로 담론하였다고 한다. 또한 독립군 모집과 군자금 모금 등은 밀히 추진하였으며 일정기간을 통하여 군자금을 화계 광성을 중심으로 하여 면내 토호로부터 모금하였다.

김동정, 김상호, 윤태병, 윤형중, 이철임, 최석환은 오소산 밑에서 누대를 살았으며 명문대가의 후예요, 한학에 박식하며 부유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강직하여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전형적인 유학자였다. 군내에서 3.1운동 만세 사건이 가장 치열하고 조직적인 항일한 것은 여섯분의 공도 있겠으나 비밀을 지키고 실천에 옮겨 3.1만세의 결과는 6분의 자손들이 선봉에 앞장섰기에 종친들의 대동단결의 힘이라 하겠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때 불의에 항거하고 천추만대에 숭앙의 귀감이 되리라. 역사의 뒀안길에서 묻혀버린 74년만에 재조명하고 한분 한분 쓰라린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학정에 이제 거명하는 것이 선열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위로되고 길이 편히 잠드시기를 기원하면서 향토사를 밝히는 심정을 짧은 글로서 담아 보노라.

홍성군 향토문화보호위원회

홍주향토문화연구회 김갑현

■ 자 료

1. 총독부 공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부(대정 8년)
2. 총독부 공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 원본 목록
3. 총독부 공주지방법원: 형사사건부
4. 총독부 공주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원본
5. 총독부 경성고등검찰청: 형사사건부(대정 9년)
6. 총독부 경성고등검찰청: 형사사건 원본 목록
7. 총독부 경성고등법원: 형사사건부
8. 총독부 경성고등법원: 형사 사건 상소 판결 원본
9. 장곡면사무소: 수형인명표
10. 제적부 및 호적부, 주민등록부, 민적부(성지면, 오사면, 유곡면, 열방면)
11. 홍양사
12. 3.1운동사
13. 향토연구자료(목격자, 구전전수)
14. 총무처 정부문서보존기록소

大正九刑控第七七號

刑事裁判原本

一 通 備

法

서울高等法院

판문대조명

판서원본에 + 직접 정사본 마이크로필름
으로부터 국사의 실상을 증명함

1998. 7. 29 19

중부치정부기록보존수장

大正九刑控第七七號

判決

忠清南道洪城郡長谷面佳
松里在籍居住 農

金東化事

凡 九 金 東 河
十 月 廿 九 年

右ニ對スル保安法違反及騷擾
被告事件ニ付大正九年二月五
日公州地方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

有罪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
申立アリタルヲ以テ當院ハ朝鮮
總督府檢事水野重功于與
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第一被告ハ大正八年三月一日以
降朝鮮各地ニ於テ朝鮮獨立
立示威運動ノ爲朝鮮獨立

大正九刑控第七七號

判決

忠清南道洪城郡長谷面佳
松里在籍居住 農

金東化事

凡 九 金 東 河
十 月 廿 九 年

右ニ對スル保安法違反及騷擾
被告事件ニ付大正九年二月五
日公州地方法院ニ於テ言渡シタル

有罪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
申立アリタルヲ以テ當院ハ朝鮮
總督府檢事水野重功于與
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第一被告ハ大正八年三月一日以
降朝鮮各地ニ於テ朝鮮獨立
立示威運動ノ爲朝鮮獨立

大正八年刑上第八九

被告人

尹 樂 重

七月十三日生二十一年

43

2420

관
선
문
43

장	구	구
지	구	구
구	구	구

大正九年

43号

刑事上訴判決原水綴

公州地方法院檢事官

원본과 조필

본서원본에서 직접 정사된 하위조본을
오로부터 복사한 것을 증명함

1993. 04. 19

충무처 정부기록보존

呂白十八畝由地

京邑日報漢城支向長

尹益宣

高二十八年

本籍及出產地 慶尚中道固城
郡永春面吾西里白六畝地
住所 京畿府唐津洞十六畝地
附 敎學學校學生

中華秀

高二十七年

本籍及住所 京畿府樂國洞
二十六畝地 附 京畿府樂國洞

徐西斗

高四十五年

右等對大正六年訓令第七號
違反及違反懲罰報告事

右傳安法違反及賄賂 被告事件ニ付大正八年
八月一日東京城覆審法院ニ於テ言渡シ
タル判決ニ對シ被告等ヨリ上告ヲ申立タリ依
テ當院ハ朝鮮總督府檢事草場林五郎ノ意見ヲ
聽キ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被告尹樂重同尹宜錫同李又載同李
化春同吳敬春ノ上告ハ共ニ之ヲ棄
却ス

被告尹衡重ノ治安妨害罪ニ對ス
部分ノ上告ハ之ヲ棄却ス

原判決中被告尹衡重ニ對スル駁復

同道同郡同面同里

農

被告人

尹 宜 錫

六月二十九日十九年

同道同郡同面同里

農

被告人

李 又 載

十月十二日十四年

同道同郡同面同里

農

被告人

李 化 春

一月十六日二十二年

同道同郡同面同里

農

被告人

吳 敬 春

二月二十六日十九年

同道同郡同面同里

農

被告人

尹 衡 重

六月二十二日二十二年

제 1730 호



훈 장 중

고 윤 기 순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12월 26일

대통령 노 태 우



국무총리 강 영 훈

이승훈 전국총합부서기명관

총무처장관 이 연 락



제 97 호

훈 장 중

고 윤 의 석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8월 15일

대통령 노 태 우



국무총리 강 영 훈

이승훈 전국총합부서기명관

총무처장관 이 연 락

제 2267 호



훈 장 중

고 정 태 복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장

1992년 8월 18일

대통령 노 태 우



국무총리 정 원 식

이승훈 전국총합부서기명관

총무처장관 이 분 락



제 1765 호

훈 장 중

고 윤 형 중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장

1990년 12월 26일

대통령 노 태 우



국무총리 강 영 훈

이승훈 전국총합부서기명관

총무처장관 이 연 락

제 2777 호



훈장증

2. 김동하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바 그므로 대한민국헌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국장

1992년 3월 1일



대통령 노태우



국무총리 정 원 식

이들은 전국문화재단기법관

총무처장관 이 상



제 513 호



훈장증

2. 윤익중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바 그므로 대한민국헌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국장

1990년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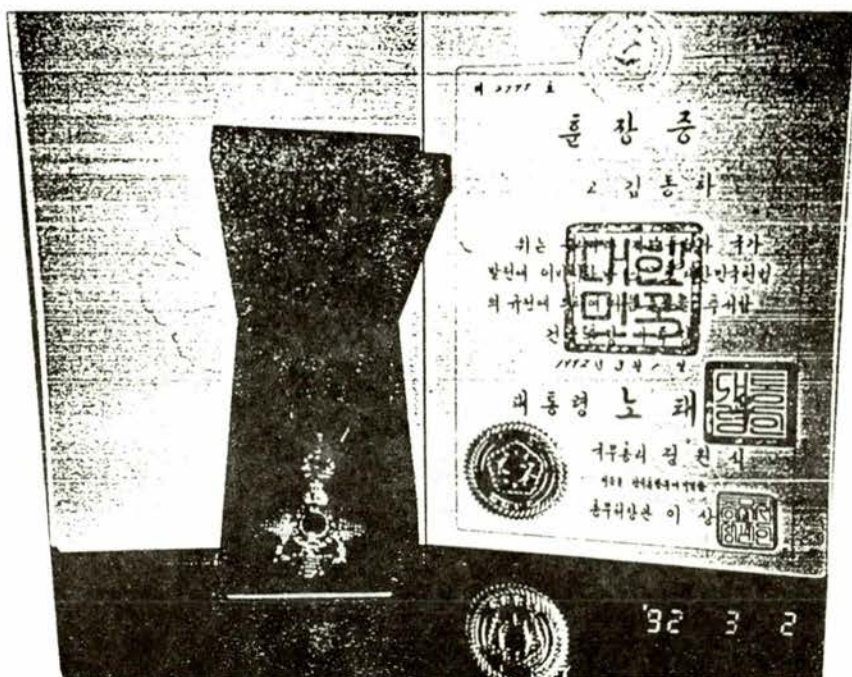
대통령 노태우



국무총리 강 영 훈

이들은 전국문화재단기법관

총무처장관 이 연 택



1919년 3.1 독립만세 수형명표

※ 1993 = 4326

리	성 명 (한문)	연 령	죄 명 (형명 및 형기)	판결확정일자	홍보감찰청(발송일자)	비 고 (후손 주소, 성명)
죽전가송광성화계	고영봉(高永奉) 강태삼(姜泰三) 강병길(姜炳吉) 김용재(金用濟)	4228(25) 4215(19) (31) (27)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0대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1년 보안법위반 중수 태형 60대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대정8년.5.30 " 4.23 " 6.19 " 4.23 " 5.30	공주시방법원 홍성경찰서(홍주지원) 공주시방법원 홍성경찰서 공주시방법원	평성(영선) 손: 광호, 광일 자: 봉선 보령군 천북면 학성리 풍계 (龍), 장곡교로 교사 자: 東九, 화계리
"	김차제(金次濟)	(49)	보안법위반 중수 태형 90대	" 4.23	"	자: 김동천
"	김동완(金東完)	4215(37)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 5.30	"	
"	김쾌성(金快成)	4234(20)	보안법위반 중수 태형 90대	" 4.23	"	
"	김용숙(金容叔)	4229(20)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 5.30	"	(叔) 평성리 자: 김이영
지정	김봉운(金奉雲)	4220(24)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 5.30	"	손: 김기영(지정리)
지정	김동준(金東俊)	(26)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 5.30	"	손: 김기학(지정리)
지정	김동수(金東秀)	(18)	보안법위반 태형 60대	" 4.18	"	자: 김명환
죽전가송	김동운(金東雲)	(32)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 4.18	홍성경찰서(홍주지원)	손: 김일방,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264-252
죽전가송	김동철(金東鐵)	4211(41)	보안법위반 태형 60대	" 4.18	"	(哲) 金基鐵 祖父
죽전가송	김동화(金東化)	1892(29)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18개월	대정9년.4.19	경성고등법원	
죽전가송	김동정(金東正)	(49)	보안법 위 소요 선동죄 고문으로 사망	대정8년.4.7	홍성경찰서	
"	김상호(金商浩)	(48)	보안법 위 소요 선동 사건의 협의자	" 4.7	"	손: 김동구(화계) 고문 12월(서훈선청중)
"	김봉구(金奉九)	4216(37)	보안법위반, 소요죄 벌금 30원	" 5.8	공주시방법원	손: 김교윤
상송계	김수문(金水文)	4233(26)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 5.30	"	상송 3구
화계	김화선(金化先)	4228(22)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 5.30	"	
대현	김익환(金翊煥)	(34)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8개월	대정15년	경성지방법원	전: 홍성경찰서장, 김기행 父
광성계	김명서(金明西)	(27)	보안법위반 태형 90대	대정8년.5.9	공주시방법원	자: 김윤계(경기도 부천시 본동562-236 14/2 현대빌라301호 ☎ (032) 654-8229
죽전가송	김정랑(金正浪)		보안법 위 소요죄 태형 90대	" 5.9	"	
죽전가송	김창순(金彰順)		보안법 위 소요죄 태형 90대	" 5.30	"	
죽전가송	김천용(金贊龍)		보안법 위 소요죄 태형 90대	" 5.30	"	

1919년 3.1 독립만세 수형명표

※ 1993=4326

터	성명(한문)	연령	죄명(형명 및 형기)	판결확정일자	홍보감찰청(발송일자)	비고(후손 주소, 성명)
지정	박기도(朴基道)	(41)	보안법 및 소요죄 태형 90대	대정8년.5.30	공주지방법원	
신공	박승익(朴勝益)	4211(42)	보안법 및 소요죄 태형 90대	" 5.30	"	
화계	박학근(朴學根)	(25)	보안법 및 소요죄 태형 90대	" 4.23	"	
신동	유학선(劉學先)	보안법 및 소요죄 태형 90대	" 4.23	"		
신공	오경춘(吳敬春)	4224(38)	보안법 및 중수 징역 2년	" 10.18	서울고등법원	
화계	윤기섭(尹基燮)	(25)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 5.30	공주지방법원	
"	윤만수(尹萬洙)	4233(35)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벌금 30원	" 5.30	"	(水) 손: 숙희(광성리 2구 동살미)
"	윤낙중(尹樂重)	4233(26)	보안법 및 중수 징역 3년	" 5.30	"	尹顯重(서울노원구상계공공APT 609-106 T.931-6470)
"	윤의석(尹宜錫)	4234(19)	보안법 및 중수 징역 18월	" 5.30	"	尹義石(여국정)안양시 백안동 뉴타운A 4차 10-101 (0343-43-7866)
"	윤형중(尹衡重)	4228(26)	보안법 및 중수 징역 1년, 벌금 30원	" 5.30	"	尹衡重(여국정) 서울 강서구 화곡1동 421-101 (690-1370)
"	김교순(金敎順)		보안법 위반태형 90대	" 5.30	"	자: 김정옥(광성 2구 안골)
"	윤태병(尹泰炳)		보안법 위반태형 90대	" 5.30	"	
"	윤상운(尹相雲)	(35)	보안법 위반태형 90대	" 5.30	"	서울 윤식창 父
"	윤갑진(尹甲鎭)		보안법 위반태형 90대			(여국정)
내국	윤익중(尹益重)	(28)	대정8년 신령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정12년.10.11	경성고등법원	
신동	이용우(李用雨)	(24)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대정8년.5.9	공주지방법원	(龍) 신동리 이상갑 父
"	이성중(李聖鍾)	(20)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 5.9	"	(聖純) 신동리 이홍우 父
화계	이소만(李小萬)	(18)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 5.9	"	
도산	임병수(林炳秀)	(23)	보안법 위반 태형 30대	" 12.30	홍성경찰서	도산리 생미, 종조부(임승진)
화계	이백임(李百林)	(26)	보안법 위반 태형 30대	대정10년.8.30	공주지방법원	평천고등학교 서무과장 이원섭 숙부
지정	이주형(李周亨)	4213(17)	교통법 위반 태형 90대	대정8년.4.18	홍성경찰서	
"	이경열(李景烈)	4226(28)	교통법 위반 태형 90대	" 4.18	"	자: 이재홍(수원), 재혁(지정)
죽전	이재석(李在石)	4229(25)	교통법 위반 태형 60대	" 4.18	"	금영, 민영, 광영(죽전)
"	이순용(李順用)	4219(23)	교통법 위반 태형 60대	" 4.18	"	내죽, 손: 수호
화계	이철임(李喆林)	4233(20)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 5.30	공주지방법원	평천고등학교 서무과장(子) 이원섭

1919년 3.1 독립만세 수형명표

※ 1993 = 4326

리	성 명 (한문)	연 령	죄 명 (형명 및 형기)	판결확정일자	홍보감찰청 (발송일자)	비 고 (후손 주소, 성명)
화계도산	이성근 (李成根)	4227(37)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대정8년.5.30	공주지방법원	李善仁(장남시 상대운동 2동 467 차: 이관성, 9/9 아용구 相益(노원구 중계1동 주공APT 510-403), 吉(용산구 관할 56-7 ☎ 754-5192
화계	이문재 (李文載)	4231(27)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3년	" , 5.30	경성고등법원	
未詳	이동명 (李東明)		보안법위반 중수 징역 6월	" , 5.30	공주지방법원	
광성	전재명 (全在明)	(20)	보안법위반 및 중수 사망으로 소권소멸	" , 6.30	"	(田在明) 옥독한 고문으로 死亡
죽건가송	정태복 (鄭泰復)	(32)	보안법 위반 및 중수 징역 1년	대정12년.10.11	경성고등법원	광천읍 내죽리 손: 정관수
가송	정해득 (鄭亥得)	(27)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대정8년.4.23	공주지방법원	(廣人, 德化)
화계	최광인 (崔光仁)	4227(35)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 , 4.23	"	(福順) 손: 홍기(외계)
"	최채선 (崔彩仙)	(22)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벌금 30원	" , 4.23	"	
"	최순성 (崔順成)	4204(27)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벌금 30원	" , 4.23	"	
"	최기석 (崔奇石)	4226(27)	보안법 위반 및 중수 징역 6월, 벌금 30원	" , 5.30	"	오성리 자: 최영봉
"	최석환 (崔錫煥)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편동음모 10일간 고문	" , 4.23	홍성경찰서	손: 형원(외계)
"	최신선 (崔新先)	4227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 , 4.23	공주지방법원	손: 장환
"	최덕화 (崔德化)	(34)	보안법 위반 태형 90대	" , 5.30	"	
도산	최선동 (崔仙童)	(21)	보안법 위반 태형 30대	" , 12.30	홍성경찰서	도산리 생미, 자: 최은봉
"	조태산 (趙泰山)	(31)	보안법 위반 태형 30대	" , 12.30	"	도산리 1구 생미, 자: 조계덕
화계가송	허천손 (許千孫)	(38)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벌금 30원	" , 5.30	공주지방법원	
"	한상철 (韓相喆)	(29)	보안법 위반 징역 6월, 벌금 30원	" , 5.30	"	(한기수)
산성	표흥선 (表興先)		보안법 위반			
"	오창근 (吳昌根)	(24)	보안법 위반 태형 30대	대정10년 6.28	홍성경찰서	
"	김종건 (金鍾建)					손: 김동섭
화계	이기영 (李璣榮)	(26)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대정8년.5.31	공주지방법원	
"	양봉식 (梁鳳植)	(23)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	김동구 (金東九)	(37)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	최구용 (崔九龍)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1919년 3.1 독립만세 수형명표

※ 1993 = 4326

리	성명(한문)	연령	죄명(형명 및 형기)	판결확정일자	공주지방법원 홍보검찰청(발송일자)	비고(후손 주소, 성명)
화계 신풍 도산 가송 "	김홍식(金弘錫) 송여직(宋汝直) 나상준(羅相俊) 고일상(高日相) 이동홍(李東洪)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대정8년.5.31 ",.5.31 ",.5.31	" " " " "	
도산 "	양재풍(梁在豐) 박재순(朴在順)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5.31 ",.5.31	" "	
죽전 화계 신풍	정일창(鄭日彰) 최묘계(崔卯計) 이서동(李瑞童)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5.31 ",.5.31 ",.5.31	" " "	
죽전 도산 "	정익조(鄭益祚) 양인갑(梁仁甲) 문창섭(文昌燮)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5.31 ",.5.31 ",.5.31	" " "	
가송 신풍	김치상(金致祥) 박종윤(朴宗倫)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5.31 ",.5.31	" "	
도산 " " "	정화삼(鄭化三) 이성운(李聖雲) 임문호(任文鎬) 김재춘(金在春)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 징역6월, 벌금30원	" ,.5.31 ",.5.31 ",.5.31 ",.5.31	" " " "	

홍주관아팔경(洪州官衙八景)

배 동 순

一. 홍주편(洪州篇)

1. 홍주관아팔경(洪州官衙八景)

1) 白月鎮開(백월진개)

地自三韓天作塹(지자삼한천작참) … 이 땅은 삼한으로부터 하늘이 지은 참루였고
城從百濟海爲襟(성종백제해위금) … 이 성은 백제때 이미 바다로 두른 금대였다.
雲開月岳洪州鎮(운개월악홍주진) … 홍주의 진산은 구름위에 솟아있고
金馬川潘古又今(금마천반고우금) … 금마내 울타리는 고금을 흐른다.

2) 洪州牧都(홍주목도)

高城四面石崔嵬(고성사면석최위) … 높은 성 사면은 돌산이 우뚝우뚝
十九宮中大鎮開(십구궁중대진개) … 19궁 우두머리 대진이 자리한 곳
金馬川通滄海曲(금마천통창해곡) … 금마천엔 바다의 곡조가 찰랑이고
伽倻山斷白雲隈(가야산단백운외) … 가야산 모퉁이에 흰구름 스쳐간다.

3) 衙門烟月(아문연월)

白月鎮氣交憐通(백월진기교린통) … 백월진산 그 기운 사방으로 뻗어난 곳
廳內槐樹對無窮(청내괴수대무궁) … 괴수가 자리한 그 세월은 궁합이 없다.
牧都治政遺燭新(목도치정유촉신) … 목 관할 정치는 새로움을 더하니
內浦山河似鎬豐(내포산하사호풍) … 내포의 산하는 풍성으로 빛나도다.

4) 天鼓周城(천고주성)

世事風雲楚漢爭(세사풍운초한쟁) … 초한전 치룬 세월 풍운이 가시는 듯
周留雁飛雲共程(주류안비운공정) … 주류성엔 몇줄기 구름 길 날르고
南園老松淑氣薰(남원노송숙기훈) … 노송의 맑은 향기 남산에 그윽하니
義兵嶺動洪州城(의병혁훈홍주성) … 의병의 공훈은 홍주성에 빛나도다.

5) 繫風樓銘(계풍루명)

想見名都盛際開(상견명도성제개) … 호서의 도시로 이름이 높던 무렵
人事老當益壯哉(인사노당의장재) … 인사를 다룬 선비 익장익수 하였기로

流轉廳壁當年蹟(유전청벽당년적) ... 청벽에 남긴 치척 후세에 유전이라.
樓上管絃逸興催(누상관현일흥취) ... 계풍루 현악은 흥미를 재촉인다.

6) 四達亭思(사달정사)

四達亭中有素期(사달정중유소기) ... 사달정 본디부터 기약이 있었던 듯
歌詠猶傳父老恩(가영유전부로는) ... 조상의 많은 시문 여기에 전해있네.
最是客窓深夜燭(최시객창심야촉) ... 때마침 객창엔 촛불이 깊었는데
碧荷風月滿甕池(벽하풍월만완지) ... 연못은 바람, 달, 소낙비로 가득일세.

7) 鄉校多士(향교다사)

鄉校地氣千祥和(향교지기천상화) ... 향교의 지기는 천가지로 상서로와
明倫學士登材多(명륜학사등재다) ... 명륜학사 대대로 등장이 많았고
詩文筆力溢教坊(시문필력일교방) ... 문필의 가르침이 곳곳에 넘쳤나니
仁義得宜百年歌(인의득의백년가) ... 인의의 옳은 님은 백년의 노래일네라.

8) 朝陽祝祭(조양축제)

暉暉勝地秋日晴(휘휘승지추일청) ... 밝고 밝은 승지는 가을따라 더욱 맑은데
門樓築造遠公名(문루축조원공명) ... 축조의 정교함은 명성으로 높았도다.
爆竹曲藝銀漢流(폭죽곡예은한류) ... 불꽃놀이 곡예모습 은하에 가득이라
祝祭歌燈覺世情(축제가등각세정) ... 정등행렬 노래소리 홍주 얼 깨우치네.

二. 홍성군(洪城郡)

1. 洪城風謠十三選(各面巡禮頌)

1) 九百義塚(구백의총)

爲國效忠忘有生(위국효충망유생) ... 나라위한 효충으로 생명을 잊었고
且天大義以仁成(단천대의이인성) ... 하늘같은 대의로 인의를 이루었네.
丙午抗日權域華(병오항일권역화) ... 병오년의 항일전은 근역의 꽃이기로
洪陽獨照日星明(홍양독조일성명) ... 해와 별은 홍양땅을 유달리 비추도다.

2) 龍躍上下(용약상하)

飛龍昇天造化風(비룡승천조화풍) ... 하늘을 날르는 용 풍운을 일으키니
淵叢魚躍方鱗紅(연총어약만린홍) ... 물속에 뛰는 고기 비늘이 붉었도다.
西域石佛上下來(서역석불상하래) ... 서역의 석불은 상하리로 찾아왔고
鳳鳴在樹驅豐隆(봉명재수구풍룡) ... 봉황은 나무에서 풍년을 노래한다.

3) 三峯忠祠(삼봉충사)

赤洞崔瑩盡誠忠(적동최영진성충) ... 적동의 최영은 고려조의 충성인이요
金谷三同保血衷(금곡삼문보혈충) ... 금곡의 삼문은 조선조의 충신였네.

祠堂書院草滿墟(사당서원초만허) ... 사당과 서원엔 풀만이 우북한데
遺燭芳傳吐文虹(유촉방전토문홍) ... 성충의 꽃무지개 천년두고 흐른다.

4) 鳳鳴朝陽(봉명조양)

春先東國迓朝陽(춘선동국아조양) ... 봄따라 먼저 온 동쪽의 아침햇살
月鳳兩山增天祥(월봉양산증천상) ... 월산과 봉수산 서기망양 어리도다.
金馬坪村發稻禾(금마평촌발도화) ... 금마 들 평촌부락 벼꽃이 무레이니
義星化日湖西鄉(희황화일호서향) ... 예로부터 화한 기운 호서에 밝았더라.

5) 雲谷吹笙(운곡취생)

雲谷風月爽胸襟(운곡풍월삼흉금) ... 운곡에 풍월이라 가슴껏 삼상한데
仙人吹笛歲星臨(선인취적세성림) ... 선인의 피리소리에 세성이 군림하네.
素謂乾國有笙簧(소위건국유생황) ... 그 옛날 소위건에 생황을 두었기로
松聲竹韻自然琴(송성죽뢰자연금) ... 송죽이 울리는 소리 자연금을 짝지웠네.

6) 夏牛喘月(하우천월)

夏日百耕十雙田(하일백경십쌍전) ... 길고 긴 여름날에 백마지기 갈았건만
奔走牽犁號令專(분주견려호령전) ... 달리는 밭 보습쟁기 호령에 묵였도다.
肩駕懸月催喘息(건가현월취천식) ... 달보고 해인줄 놀래다가 천식하네.
白月亮神尙依然(백월양신상의연) ... 백월산 산신은 그 어찌 묵묵하고!

7) 龜負八卦(구부팔괘)

九苞耆德千歲龜(구포기덕천세구) ... 천년의 큰 거북 구덕을 등에 지녀
洛書奇隅月影隋(낙서기우월영수) ... 낙서의 이법으로 달과 함께 크고 지고
龜龍八卦此地占(구룡팔괘차지점) ... 구룡이며 팔괘가 이로하여 생겼나니
濟士多出善薦基(제사다출선위기) ... 많은 인물 배출함은 홍동의 자랑이로다.

8) 雙礮摩崖(쌍계마애)

質凝雲彩錦屏張(질응운채금병장) ... 땅과 구름 그대로가 비단병풍이 아닌가!
千折龍鱗記呈祥(천절용린기정상) ... 천번 꺾인 용비늘 비경에 잠겼나니
坐待明月磨崖階(좌대명월마애계) ... 명월을 기다려 마애들 서성이다
醉留佳賓白雲莊(취류가빈백운장) ... 취한 손 얼싸앓고 백운속에 머무르네.

9) 烏棲曉鍾(오서효종)

江海眺望半空天(강해조망반공천) ... 강해를 바라보다 반공에 멈춘 몸
群峯擁我曲肱眠(군봉옹아곡굉면) ... 못봉은 나를 감싸 팔비고 잠들었네.
化翁灣開想道衡(화옹만개상도형) ... 화옹의 도술로 천수만 열었기에
淨巖曉鍾百世傳(정암효종백세전) ... 정암의 새벽종은 백세토록 은은하다.

10) 瓮浦歸帆(옹포귀범)

大鵬入海滿春潮(대봉입해만춘조) ... 대봉입해 길지에 만조가 밀려들제
漁舟商船物產饒(어주상선물산요) ... 고기배 장사배 물물이 풍성하다.

順風歸帆映芳洲(순풍귀범영방주) ... 방주를 돌아드는 돛단배 행렬들!
 瓮岩柱標島嶼橋(웅암주표도서교) ... 독바위와 도서를 이어주는 다리일러라.

11) 石堂眺望(석당조망)

神衿土城歷世眠(신금토성역세민) ... 신금의 분우티는 초로의 영화
 潔城館燈應名賢(결성관등응명련) ... 결성관 등불앞엔 선비들 영자
 古代風物江鷗夢(고대풍물강구몽) ... 고대의 풍류는 비둘기의 꿈일런가!
 東軒天月幾回圓(동헌천월기회원) ... 동헌에 뜨는 달이 몇번이나 둥굴었더냐?

12) 銀織長尺(은직장척)

獅子吼聲銀河雷(사자후성은하뢰) ... 사자가 후호하니 은하별이 찢렁찌렁
 挽弓射雀將者魁(만궁사작장자괴) ... 활을 당긴 장수의 팔뚝은 우들우들
 花峰密香奉養隣(화봉밀향봉양린) ... 봄날의 꽃봉은 꿀 빚어 봉양하고
 長尺織錦甲冑裁(장척직금갑주재) ... 길게 짜낸 비단으로 갑옷을 마루젠다.

13) 南塘漁場(남당어장)

許巢土亭月影殘(허소토정월영잔) ... 토정의 옛자취 월영속에 아물아물
 滿船鳴笛且自歡(만선명적차자환) ... 만선의 기적소리 절로 흥이난다.
 淺水南塘西海磯(천수남당서해기) ... 천수만 기슭에 남당이 명미하니
 港如城市出檣竿(항여성시출장간) ... 어장은 성시처럼 깃대가 솟아난다.

※ 洪城 長谷面 廣城里的 烏史 新舊八景의 主題名들

① 舊八景

대청야월(大廳夜月), 통교설경(桶橋雪景), 예공성옥(曳公聲玉), 석탑청앵(石塔聽鶯), 약천표급(藥泉瓢汲), 석상회고(石像懷古), 옥간충성(獄間蟲聲), 서당송성(書堂誦聲)

② 新八景

잠두귀운(蠶頭歸雲), 화전유접(花田遊蝶), 내원효종(內院曉鍾), 유어농파(遊魚弄波), 광제폭포(廣濟瀑布), 진방조양(眞方朝陽), 사송모우(四松暮雨), 안치월출(雁峙月出)

三. 결성편(結城篇)

1. 결성관 제영(潔城館 題詠: 15인의 글)

1) 觀察使 具鳳齡(관찰사 구봉령)

- a) 警柝通宵寂(경석통소적) ... 딱때기 소리는 밤새도록 조용한데
 鯨波帳眼前(경파장안전) ... 고래같은 파도 눈앞을 가로막는다.
 松靑收草暈(송청수초장) ... 덩굴속 풀베기에 흥역 생길까봐
 陰雲繞校烟(음운요교연) ... 흐린 구름연기 학교촌을 둘러싼다.

海暈憑欄處(해훈빙난처) ... 배멀리로 난간에 의지하다가
雲生柱杖邊(운생주장변) ... 돛대머리 구름 감을 바라본다.
長吟傍蒼竹(장음방창죽) ... 대숲을 바라 긴 노래 읊는다
自覺興悠然(자각흥유연) ... 자연의 유연함을 깨닫는도다.

B) 結城今再到(결성금재도) ... 결성은 두번째나 오는 길
滄渤小軒前(옹발소헌전) ... 안개구름은 동헌뜰에 자-옥
蜃市籠晴靄(신시농청애) ... 신기루는 맑은 노을의 소쿠리
鹽村畢盡烟(염촌필진연) ... 염뱃에 일던 안개 다 건치네.
乾坤通表裏(건곤통표리) ... 건곤은 표리없는 한 덩어리
山海是中邊(산해시중변) ... 산, 바다가 이 가운데 씨인것을
浩蕩窮遐歸(호탕궁하귀) ... 호탕하게 돌아갈 겨를없어
遙空意杳然(요공의묘연) ... 먼하늘 바라보니 묘연하기만 하다.

2) 觀察使 黃廷或(관찰사 황정혹)

渡海仍鹵路(도해잉노로) ... 바다 건너 소금길 거둬 가려니
孤松在眼前(고송재안전) ... 외로운 솔 눈앞에 다가선다.
未能田馬首(미능전마수) ... 노새로도 가기 어려운 들판
空腹望墟烟(공복망허연) ... 허기진 체 먼촌의 연기를 바라보며
笑我無遑處(소아무황처) ... 허둥거리는 내자신을 자소해본다.
煩君在行邊(번군재행변) ... 동행인은 괴로워 길가에 앉았나니
歸來視古句(귀래시고구) ... 돌아갈 제는 옛 글이나 읊어보련다.
三復共懷然(삼복공취연) ... 세번이나 오가는 길 쓸쓸하기만 하구려.

3) 觀察使 柳空從龍(관찰사 유공종룡)

野望支頤久(야망지이구) ... 턱을 오래 받치고 들을 본다.
東風曲欄前(동풍곡난전) ... 굽은 난간 앞에 동풍은 물리고
牛眠晴隴日(우면청룡일) ... 맑게 개인 두렁에 소가 조는데
樵餉遠林烟(초향원림연) ... 나무꾼 풀짐은 먼 숲쪽에 보이니라.
細草長天外(세초장천외) ... 어린풀은 여름날에 더욱 자라고
閑花碧水邊(한화벽수변) ... 푸른 물가의 꽃은 한가롭다.
客懷殊浩蕩(객회수호탕) ... 객의 회포는 더욱 호탕하기에
歸計轉悠然(귀계전유연) ... 돌아갈 계획 궁그려 본다.

4) 觀察使 李龜玲(관찰사 이구령)

客裏逢春再(객리봉춘재) ... 손님이 되어 다시 봄을 맞는다.
傷懷定倍前(상회정배전) ... 상처 입은 감회는 갈수록 돌아나는데
山花紅勝錦(산화홍승금) ... 산꽃은 비단보다도 더욱 곱구나.
陌柳綠如烟(백류녹여연) ... 실줄기 버드나무 끝에선 연기가 인다.
旅館荒城外(여관황성외) ... 몸 담을곳 여관은 거처른 성밖이니
孤吟暮海邊(고음모해변) ... 해변가 저녁 노을속에 노래부른다.

歸期又未決(귀기우미결) … 돌아갈 기약은 아직도 정한바 없어
 心事轉茫然(심사전망연) … 심사는 전전반측 묘연하구나.

5) 觀察使 潘碩柯(관찰사 반석가)

雨後便吟坐(우후편음좌) … 비온뒤 다시 앉아 읊조려 본다.
 風雲入眼前(풍운입안전) … 구름 끌고 온 바람 눈앞에 서성이고
 遙岑隱宿霽(요잠은숙제) … 먼산 봉우리 안개를 헤치고 일어날제
 獨鳥破長烟(독조파장연) … 외롭게 날으는 새 긴 연기를 끊는다.
 春草鄉心外(춘초향심외) … 봄풀은 고향 먼곳에서 푸르는데
 鯨波客夢邊(경파객몽변) … 큰 물놓음이 객지의 꿈가에 웅게인다.
 十年南北路(십년남북로) … 십년간이나 남북으로 헤매던 길
 歸計正茫然(귀계정망연) … 돌아갈 계교는 더욱이나 막연하구나.

6) 梅溪 曹偉 芍藥詩(매계 조위 작약시)

風吹露洗始朝陽(풍취로세시조양) … 바람과 이슬과 햇살이 가꾸어 낸 모습
 國色稀然吐美香(국색희연토미향) … 절세의 미색이 향기를 품어 내누나.
 莫把姚黃_{아우} 比擬(막파조황경비의) … 모란꽃을 다른 꽃에 비유하지 말아라.
 半酣西子靚新粧(반酣서자정신장) … 화려한 서시가 단장한 그 모습인 것을

7) 竹溪 安琛 芍藥詩(죽계 안침 작약시)

紅藥翻階擲洛陽(홍약번계선낙양) … 멋대로 계단에 어우러져 핀 작약
 花王應愧獨無香(화왕응괴독무향) … 꽃왕으로 부끄러움은 향기하나 없음이로다
 雖然未及寒梅探(수연미급한매타) … 그러나 매화의 살받침에는 미치지 못하나니
 雪裏高孤倚淡粧(설리고고의담장) … 눈속의 산뜻한 화장이 너무나 고고하기로…

8) 敬次官 金半于 詠梅詩(경차관 김반우 영매시)

春平清洪不見梅(춘평청홍불견매) … 따스고도 맑은 봄날 매화되지 않으매
 安中空憶故園開(안중공억고원개) … 즐거운 공상하다 고원에 들어갔네.
 仙太守還無俗口(선태수환무속구) … 선태수는 아직도 환속안했나
 能得雙清一樣栽(능득쌍청일양재) … 능히 맑고 맑은 양태 하나 같구나.
 植物雖微見所安(식물수미견소안) … 식물이 비록 미미하나 있는 자리에 있는 법
 古賢或歎歲暮看(고현혹탄세모간) … 옛 현인들은 세모에 이르러 단식하였다.
 眼前喜得除荆棘(안전희득제삭극) … 눈앞에 느끼는 정 암행부동 그 아닌가
 雖道人間立志難(수도인간입지난) … 인간이 살아가는 길 뜻세우기가 어렵단다.

9) 洪州牧使 鄭士龍 到龍生浦(홍주목사 정사룡 도룡새포)

五馬聯翩稅晚亭(오마연편세만정) … 다섯말이 연달아 달리는 세만정
 春州潮長避痕青(춘주조장피흔청) … 봄철 긴 조수는 푸른 이끼를 피하듯하고
 波濤亂石蟠_맴甲(파도난석호점갑) … 파도치는 난석엔 굴조개 붙어 다니나니
 日射高梁驚刷銅(일사고량로쇄동) … 해는 어량에 비치고 갈매기는 뺨을 쓴다.
 蒼海桑田元靡插(창해상전원미삽) … 상전벽해 그것도 시원하게 쏠린 벌판
 乘風波浪却難形(승풍파랑각난형) … 바람탄 물결에 원형은 찾기 힘들다.

爭如釣鱸忘機坐(쟁여균수망기좌) … 낚시꾼 기회 놓칠세라 다투어 앉나니
世上消盈付醉醒(세상소영부취성) … 세상의 영허는 취하고 깨는데 달렸다.

10) 李安愚(이안우)

客裡三月半(객리삼월반) … 객지돌기 3개월반이라네.
石堡亂峯前(석보난봉전) … 돌담은 거친 봉 앞에 서렸는데
俚落桃花雨(이락도화우) … 지는 도화 울타리에 비오듯 하니
郊墟芳草烟(교허방초연) … 들언덕 파란풀이 얼굴내민다.
隔水橫林帶(격수횡림대) … 물건너 수풀이 허리두르고
鳥沒斷雲邊(조몰단운변) … 새깃은 구름가를 자질한다.
百世興三域(백세여삼역) … 백세동안 여러 고을 돌아다녔네.
登臨一既然(등림일기연) … 자연은 모두가 한결같은 걸!

11) 李 詹(이詹)

風塵曾戰地(풍진증전지) … 왜구가 일으킨 풍진의 땅!
城堡更人烟(성보갱인연) … 성의 보루에 연기 뭉게이고
戍笛吹樓上(술적취루상) … 수자리 피리소리 높으니
魚舟閣岸邊(어주각안변) … 어선은 해변에 출렁인다.

12) 金伯英(김백영)

孤城閑日月(고성한일월) … 고성도 일월 한적하고
蒼海隔雲烟(창해격운연) … 창해는 구름연기에 각혔더라.

13) 安 純(안순)

海島軒窓下(해도헌창하) … 섬들은 동헌의 아래요
風帆機案前(풍범계안전) … 범선은 책상 앞의 안대로다.
孤雲迷積雪(고운미적설) … 고성은 적설로 어지러운데
喬木帶寒烟(교목대한연) … 교목은 찬 연기를 띠었도다.
無術醫民病(무술의미병) … 병든 백성 많으나 기술없으니
何時到日邊(하시도일변) … 어느때에야 밝은 날을 기약하리.
三峰行漸遠(삼봉행점원) … 삼봉은 갈수록 멀고도 먼데…
霜鬢自飄然(상빈자표연) … 귀밑에 서리는 저절로 날리누나.

14) 應唱詩(應唱詩)

先祖曾遊處(선조증유처) … 선조가 일찌기 노닐던 곳
追思百載前(추사백재전) … 백년전을 미루어 생각한다.
遺言留古壁(유언유고벽) … 유언은 옛벽에 걸려 있고
餘景帶寒烟(여경대한연) … 경치는 찬 연기를 띠었고너
白首霜風下(백수상풍하) … 흰머리는 서리바람 일고
丹心旭日邊(단심욱일변) … 떠오르는 햇살, 갓의 단심

看雲關塞斷(간운관색단) … 간간이 구름에 끊기니
不覺涕潛然(불각제잠연) … 저절로 눈물이 글썽글썽

2. 東軒四時詞(동헌사시사)

1) 봄(春)

一片漁舟共月浮(일편어주공월부) … 한조각 고기배는 달과함께 떠있는데
山下沙棠已落花(산하사당이나화) … 산밑 사장에는 해당화 벌써 가네.
茶鼎酒杯携所有(다정주배휴소유) … 다그릇과 술잔은 가지고 왔는데
滿樽同醉計無由(만준동취계무유) … 가득한 술 마시면 취할수 있을런지.

2) 여름(夏)

百轉鸛鶯弄日長(백전이황농일장) … 피꼬리 노래속에 여름날은 길고
萬絲楊柳拂池塘(만사양류불지당) … 만줄기 버들가지 연못을 쓰는데
軒窓竟夕忘歸去(헌창경석망귀거) … 저녁나절 창가에서 멍하니 있노라니
翠樹含風流袖涼(취수함풍유수량) … 푸른 숲 바람기에 옷소매만 서늘하다.

3) 가을(秋)

渡津漁家擘蟹黃(도진어가열해황) … 나루터 주막에는 게 벌써 누르고
稻穀村村酒熟香(도곡촌촌주숙향) … 추수마친 마을에는 술익은 향기나네.
政好衣樓邀東月(정호의루요동월) … 시절좋아 의루에서 동쪽 달 맞으며
百年心事付蒼茫(백년심사부창망) … 백년의 심사를 창망에 부치도다.

4) 겨울(冬)

雪后山如笨伯肥(설후산여분백비) … 눈뒤의 산모양은 비대한 사람같고
碧雲江淨浦帆稀(벽운강정포범희) … 푸른 구름 맑은 강엔 돛단배 드물구나.
舉白割鮮殊未厭(거백할선수미염) … 주점에서 잔 기울이는 맛 싫지 않으니
先憂後樂與誰其(선우후락여수기) … 선우하고 후락하는 일 그 뉘와 함께 하리

3. 官衙四景詞(관아사경사)

1) 동헌승아(東軒嵩衙)

石堂容姿碧更濃(석당용자벽갱농) … 석당의 고운자리 푸르고도 푸른데
縣治青史鍵鑰頌(현치청사건약송) … 현치의 깊은 역사 열쇠처럼 잠겼고녀.
政事想考終應解(정사상고종응해) … 정사를 상고하여 응답을 풀어내고
城邑建營隱跡嵩(성읍건영은적송) … 성읍의 영조기술 높게도 슬기롭다.
潔州郡縣名高軒(결주군현명고헌) … 결주의 군현으로 이름높은 동헌인데
文籍不在語難工(문적부재어난공) … 남은 문적 하나없어 말로하기 어려우네.
史官謝世烟霞深(사관사세연하심) … 사관마저 없는 세월 연하만 깊었고녀
書窓嫌鬧午衙蜂(서창혐노오아봉) … 시끄럽 꺼려 온 한낮의 벌들이여.

2) 동문잔초(東門殘礎)

結己古都繼馬韓(결기고도계마한) ... 마한이래의 촌락도시 그 이름 장하기로
城郭長牆繞蒲團(성곽장장요포단) ... 산성과 읍내가 긴 담으로 감싸였다.
山勢蜿蜒望海龍(산세완연망해룡) ... 산세는 꿈틀꿈틀 해룡을 닮았는데
罷雨墟域似散官(파우허역사산관) ... 비개인 관아터는 외롭기만 하다.
毀樓廢堞東門址(훼루폐첩동문지) ... 진의루 없어진 동문의 그자리엔
能尋數尺定礎看(능심수척정초관) ... 아름답리 초석만이 잔해를 보여주네.
世事如雲亂石中(세사여운난석중) ... 세사는 구름같이 돌속의 꿈이라니
更覺人功始創難(갱각인공시창난) ... 다시금 느껴보는 창건의 어려움이여.

3) 刑房新粧(형방신장)

烏有直前扶房廳(오유직전부방청) ... 사라지는 순간 청방을 되찾은 슬기
古屋改修煥丹青(고옥개수환단청) ... 옛 관옥을 개수하고 단청으로 바뀌노니
滿眼奇觀笑喜安(만안기관소희안) ... 만안에 기이한 정 웃음으로 듬뿍
小杯微醉自淸寧(소배미취자청녕) ... 작은 잔 들고도 스스로 취하도다.
官衙復活邑有福(관아부활읍유복) ... 관아문화재 부활은 면민의 복지이고,
城廓欲補民亦銘(성곽욕보민역명) ... 성곽보수 숙원 군민의 영복인데
悠悠史上名文化(유유사상명문화) ... 유유한 역사위에 문화는 이름높고,
忽忽人間壽延齡(홀홀인간수연령) ... 홀홀한 인간 수명에 예술이 손짓한다.

4) 神衿古城(신금고성)

柁山爲鎮古土城(평산위진고토성) ... 청산은 백제때의 옛토성 진산이라.
點天星似滿碁衡(점천성사만기형) ... 북두성이 자루돌듯 저울대가 위주였네.
今日鄉談琴谷村(금일향담금곡촌) ... 금일의 시골애기 금곡촌이 고작인데
昔年康衢神衿榮(석년강구신금영) ... 옛날의 신금때는 번영담이 가득이었네.
板築地下三足器(판축지하삼족기) ... 성의 판축 지하에선 삼국시대 삼족기요,
發掘文化聚圭精(발굴문화취규정) ... 성지안 땅속에선 주거지가 발견됐네.
結己舊基坻于地(결기구기분우지) ... 결기의 구기는 분우터가 분명하여
風流惠民歲稔亨(풍류혜민세임형) ... 풍류는 혜민에게 세풍을 기여했도다.

4. 官衙雜詠(관아잡영)

1) 望日軒 追憶(망일헌 추억)

瑞氣繞庭望日軒(서기요정망일헌) ... 서기가 망일헌 뜰안을 감싸니
時有清風爲掃門(시유청풍위소문) ... 마침 청풍이 와서 문을 쓸다.
東天羲輪城邑照(동천희륜성읍조) ... 동천의 밝은 달이 읍성을 비추나니
萬物俱含雨露恩(만물구함우로운) ... 만물에 미치도록 국은이 두텁도다.
淸喜月中雁聲過(청희월중안성과) ... 맑게 개인 달밤에 기러기 지나가나니
秋到黃花憶故園(추도황화억고원) ... 가을에 국화보며 옛동산을 생각한다.
少壯幾時生白髮(소장기시생백발) ... 젊은 어디가고 벌써 백발이라!
夕陽無限野夕昏(석양무한야석혼) ... 석양이 깔리자 어둠이 몰아친다.

2) 雙槐堂(쌍괴당)

雪盡花間細路通(설진화간세로통) ... 눈이 다한 꽃사이로 가는길 통하였네.
石泉麗水野青豊(석천여수야청풍) ... 돌샘 고운 물이 푸른 들에 풍부하니
誰知茅草雙槐堂(수지모초쌍괴당) ... 누가 있어 띠풀의 쌍매당을 모르리요.
門外四山秋葉紅(문외사산추엽홍) ... 문밖 네 산이 단풍으로 붉었더라.

3) 松亭姿態(송정자태)

兩軒由月爲鶴謀(양헌유월위학모) ... 내외동헌 달 불러 학까지 꾀었나니
剝落龍鱗添增留(박락용린침증류) ... 용비늘은 떨어지며 더욱더 돌아난다.
一向松亭俱姿媚(일향송정구자미) ... 송정자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와
詩情錦語藥籠收(시정금어약농수) ... 시정에 아롱진말 약그릇에 담아둔다.

4) 結城東門(결성동문)

世事紛紛一握繁(세사분분일악번) ... 이고지고 모여든 분분한 세상살이
牛車轆轤香花村(우차녹록향화촌) ... 갓갓으로 실은 수레 향화촌을 달렸다.
龍含鳳吐東門廳(용함봉토동문청) ... 용과 봉이 드나들던 동문터 초석들은
太載流轉翠影藩(태재유전취영번) ... 긴세월 흘러보낸 결기의 문패란다.

5) 結城城址(결성성지)

石堂靑翠四季同(석당청취사계동) ... 석당산의 옷자락 사시두고 푸르른데
孤城屹屹路廻通(고성홀홀로회통) ... 숲길을 돌아가며 정상을 뚫어보네.
風敲碧樹棲雲鶴(풍고벽수서운학) ... 솔바람과 운학이 꿈을 키우던 이 고장
識得朝陽種子洪(식득조양종자홍) ... 삼한때 내린 문화 역사속에 새롭고녀.

5. 結城五景(결성오경)

1) 石堂碧岫(석당벽수)

風日鮮明是洞天(풍일선명시동천) ... 바람과 햇살이 환하게 트인 하늘
地氣聳鍾得月先(지기용종득월선) ... 종처럼 솟은 지기 달빛을 얻어내니
靑龍地脈至此結(청룡지맥지차결) ... 청룡산 지맥이 이곳에서 맺는도다.
碧岫籠雲朝光邊(벽수농운조광변) ... 푸른 산 구름이고 아침해를 쏘이나니
縣治長久東軒在(현치장구동헌재) ... 현치로 빛나는 동헌의 강구세월
民城繞帶曲肱眠(민성요대곡굉면) ... 두른 허리 팔배개하고 살아온 성민들
石堂福祈登臨幸(석당복기등림행) ... 석당산에 올라가선 산천에 제사한다.
名山景觀造化全(명산경관조화전) ... 명산의 경관이 이토록 좋을시고.

2) 衡山秤穗(형산칭수)

北斗指柄衆星巡(북두지병중성순) ... 북두의 자루따라 문별이 돌아드니
秤山鈞調春序循(칭산균조춘서순) ... 저울산 고른 기운 봄철을 맞는도다.
鍾盤比量毫釐爭(추반비량호리쟁) ... 고들되 판과 추 중용으로 하나되니
稜線長杠貫珠新(능선장강관주신) ... 저울대 많은 눈금 관주를 꾀었도다.

兩岐首應豐年兆(양기수응풍년조) ... 양머리 상응함은 풍년의 징조일까?
 九穗曾符慶喜民(구수증부경희민) ... 아름들이 많은 사연 사람들에게 짝지웠네.
 月下思傾太白壺(월하사경태백뢰) ... 달아래 다루술 마시며 생각한다.
 百靈滋景算錢緡(백령자경산전민) ... 백령의 선물들이 돈꽃이에 꽃인것을!!

3) 蠶頭尋牛(잠두심우)

日月輪煥靑龍方(일월윤환청룡방) ... 해와 달이 원융을 체로삼는 청룡산
 蠶頭環溪映朝陽(잠두환계영조양) ... 잠두를 감싼 햇별 이랑으로 반짝인다.
 悟來天道無多事(오래천도무다사) ... 깨달음의 천도는 모두가 묘공의 길
 尋牛齋庭轉鳳翔(심우제정전봉상) ... 심우재 생가지엔 봉황이 나래를 편다.
 見性氷心在玉壺(견성빙심재옥호) ... 견성의 맑은 마음 옥호에 아물아물
 除煩修行禹餘糧(제번수행우여량) ... 제번의 수도량은 고비마다 한정 없어
 一聲喝破三千界(일성갈타삼천계) ... 한번크게 고함하니 삼천세계가 들먹들먹
 腦火禪機空中光(뇌화선기공중광) ... 선기는 뇌화와 마주치는 빛덩어리어라.
 ※ 한 큰소리 삼천세계를 울리는 파심인걸.

4) 靑龍瑞雲(청룡서운)

月点波心一顆珠(월점파심일과주) ... 월점의 파심은 과일의 구슬속
 龍蛇起陸太乙爐(용사기록태을로) ... 용사기록 그 힘은 태을의 화로불
 天鍾採火烽燧臺(천종채화봉수대) ... 하늘중에 불꽃담은 봉화대 흔적이며
 高山念經色空殊(고산염경색공수) ... 고산사의 독경소리 세상에 수이하다.
 文物彩度剖玉符(문물채도부옥부) ... 문물의 발전도수 옥부에 다문듯
 古蹟蒼茫不可知(고적창망불가지) ... 창망한 고적의 진수는 알길없도다.
 長留瑞雲旭暎紋(장류서운옥영문) ... 서운이 오래도록 광채무늬 자아내는 곳
 運氣靑靑江山蘇(운기청청강산소) ... 운기는 푸릇푸릇 강산기운 이어 소생된다.

5) 高山寶殿(고산보전)

靑龍氣脈旺勢流(청룡기맥왕세류) ... 청룡산 기맥은 왕성한 흐름이요,
 千年古刹夜半秋(천년고찰야반추) ... 천년의 고산사는 중추의 야월이라.
 寶殿精緻無比巧(보전정치무비교) ... 정교한 금광보전 국내에 으뜸이고
 梵鍾寂似金入口(범종적사금인구) ... 동방의 관음석불 웅함으로 수이하네.
 峯月明如玉女眸(봉월명여옥녀모) ... 봉상의 맑은 달은 옥녀의 눈망울
 先從生業趨詩務(선종생업추시무) ... 젊어서는 생업으로 시무에 시달리고
 老弱便詩勉佛猷(노약편시면불유) ... 늙어서는 수신하며 불도를 꾀한다.

6. 石堂 八景 詩唱(석당 팔경가 시창)

1) 縣井春雨(현정춘우)

縣井春啓氣 萬化生生妙且奇 昨夜若非膏雨潤 膺當化育遲 宜室宜家衆生樂 吾君惠澤知
 현정춘계기 만화생생묘차기 작야약비고우윤 응당화육지 의실의가중생락 오군혜택지
 현정에 봄이 드니 만화생생기문하다.

구름비 아니었으면 화육옹당더디리라.
우리도 의실의가 화락하니 님의 은혜인가?

2) 石泉溪流(석천계류)

夜深山寂寂 松下溪流鼎壺清 時時鳴不息 知有源頭活水清 百世吾生必由本 自是掃先塋
야심산적적 승하계류정단청 시시명불식 지유원두활수청 백세오생필유본 자시소선영
산적적야심경에 비개밀에 물 흐르니 장류불식 흐르는 물 근원옹당있으리라.
백세인생 원원장류는 선영에서 근원한다.

3) 石堂秋月(석당추월)

山深路且黑 徒步人誰訪此窮 石堂月中生 自送明光入戶中 問爾姮娥君所邇 爲報我丹衷
산심로차흑 도보인수방차궁 석당월중생 자송명과입호중 문이항아군소이 위보아단충
산깊고 길 험한데 제누라서 날 찾으리.
석당산 밝은 달이 창에 비쳐 들어오네.
문노라. 저 명월아! 님의 소식전하게.

4) 臨登石屏(임등석병)

莫張錦玉屏 必濁汝眞奈妄作 我尋西山紅綠下 天然一帶石 料得武夷七曲溪 隱屏仙庄的
막장금옥병 필탁여진나망작 아심서산홍록하 천연일대석 요득무이칠곡계 은평선장적
금평옥장 자랑마소. 필탁여진 어이하리.
내가 찾는 정상에는 백층암벽 평풍이네.
아마도 무이칠곡계에 은평선장인가!

7. 鄉校八景(향교팔경)

1) 鄉校蒼竹(향교창죽)

天下同春草木熙(천하동춘초목희) ... 천하가 모아드는 봄 향교명당 더욱 화락해
醉讀詩書自有期(취독시서자유기) ... 독서에 심취하면 성공은 기약 여음이니
名儒講述明倫堂(명유강술명륜당) ... 대대로 명유가 속출하는 명륜당이라.
得意修工特達知(득의수공특달지) ... 뜻 얻은 수공의 보람 특달의 영광알리로다.

2) 井池紅藕(정지홍우)

鏡水如盤烟翠籠(경수여반연취롱) ... 쟁반같은 거울 물위에 푸른연기 둘렀는데
鳥巾間倚北窓風(조건간익북창풍) ... 한가롭게 기대앉아 북창바람 맞았도다.
風來往往清香聞(풍래왕왕청향문) ... 바람따라 오고가는 맑은 향기 들려오니
知有芙蓉万朵紅(지유부용만타홍) ... 부용꽃이 무드되어 그의 빛이 붉었도다.

3) 西城曉月(서성요월)

夢罷開簾眼到西(몽파개렴안도서) ... 꿈을 깨고 일어나서 서쪽방향 바라보니
寒天落月在城梯(한천락월재성제) ... 떨어지는 새벽달이 성루위에 걸렸도다.

造翁遺燭宛如見(조옹유촉완여견) ... 조옹유촉 그 자취가 완연하게 나타나니
松樹碧山相映溪(송수벽산상영계) ... 송수벽산 그 모습이 시내위에 비취었네.

4) 營將長笛(영장장적)

營將峙春鳳鳴陽(영장치춘봉명양) ... 영장재 봄벌에 봉황이 울어대는데
石堂城郭碧雲鄉(석당성곽벽운향) ... 석당산의 산성은 부른 구름속 시골이네.
不妨書机春眠罷(불방서계춘민파) ... 책을 든 손 깜짝 놀라 꿈을 깨니
坐省橫烟落翠崗(좌성횡연낙취강) ... 비껴있는 저녁연기 푸른산에 가득하네.

5) 堂前雪松(당전설송)

雪晴舊國堂下看(설청구국당하간) ... 눈 개인 옛나라에서 명륜당 우러보니
玉樹銀花華亦難(옥수은화화역난) ... 옥수은하 그 광경을 어느 누가 그럴손가?
更好風翻蒼翠露(갱호풍번창취로) ... 불어오는 찬바람에 푸른빛이 드러나니
百尋老松不知寒(백심노송부지한) ... 백발되는 늙은 솔이 추운줄을 모르도다.

6) 邑內夜光(읍내야광)

女星如月復如神(여성여월부여신) ... 반짝이는 그 모습이 별도 같고 신도같아
夜雨蕭蕭色正新(야우소소색정신) ... 비내리는 밤중에도 그의 빛이 새롭도다.
天上人間通用電(천상인간통용전) ... 온세상 인간들이 전기불 놀음이니
見之非假想非眞(견지비가상비진) ... 보기에는 진실인데 생각하긴 거짓같네.

7) 保頭暮烟(보두모연)

日暮城邑百戶烟(일모성읍백호연) ... 날이 저문 성돌위에 일어나는 저녁연기
西風拖到滿郊田(서풍타도만교전) ... 바람따라 흩어지며 온 들녘에 가득하네.
保頭高低關吾廬(보두고저관오려) ... 보두막의 고저는 나의 집과 유관하니
竟是校村未忘緣(경시교촌미망연) ... 생각나는 교촌인연 손끝마다 설레이네.

8) 東疇春事(동주춘사)

疇壟春草燒痕沒(주룽춘초소흔몰) ... 논밭두렁 봄풀이 쥐불자리 덮고요.
百上桑麻一雨過(백상상마일우과) ... 이랑위의 뽕과 삼은 비맞아 옷자랐네.
農候那從年曆見(농후나종년력견) ... 농사짓는 기술은 달력부터 보는법!
田畚耒耜及時多(전답뢰사급시다) ... 전답은 쟁기보습 많이 다는 시절이네.

홍주향토박물관

- 허 규 -

자료15) 돌도끼

등근 자갈이나 몸돌 혹은 큰 돌조각을 때어내어 다듬거나 갈아서 만든 도끼를 말하며, 석부(石斧)라고도 한다.



구석기 시대에는 펜돌도끼가 사용되었고,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간 돌도끼가 주종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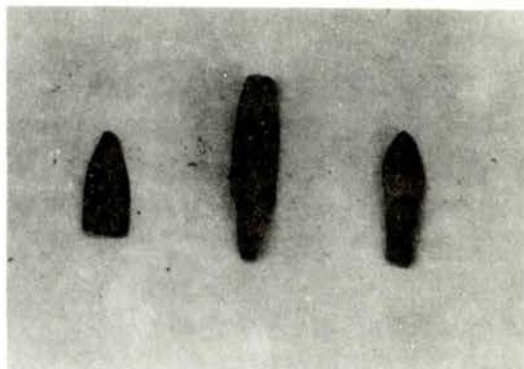
간 돌도끼는 대개 손아귀에 쥔만한 크기의 타원형 자갈을 날부분만 갈거나 전체를 도끼형태로 갈아서 만들거나 혹은 대형의 편형 납작한 파편을 갈아 만든것으로 신석기시대에 성행하여 청동기, 철기의 출현이후로도 계속 사용되었다.

자료15는 결성지방에서 출토된 간 돌도끼로써 특히 금곡리 원천에서 출토된 차돌을 성형한 간 돌도끼는 보기 드문 신석기 유물이다.

자료16) 돌살촉

선사시대 사냥도구의 하나인 활의 부속품으로 화살의 머리에 붙였던 첨두기로서 한자어로는 석촉(石鏃)이라고 한다.

돌살촉이 출토되는 유적은 집자리, 무덤이 대부분인데, 특히 지석묘와 석관묘에서는 마제석검과 반출되는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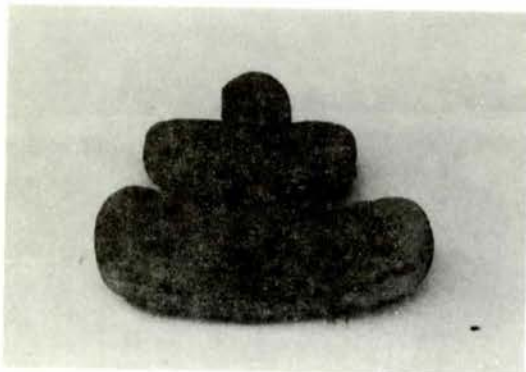
결성면 역토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주위에는 석관묘가 수십기 현존하는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자료17) 갈판과 갈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곡물이나 야생열매를 부수어서 가는데 사용하던 석기로써 밑에놓인 갈판은 갈판위에서 음식을 가는데 사용하는 갈

돌과 한쪽을 이루어 쓰인다.

갈판은 사용으로 인하여 중앙부분이 움푹하게 패어 자른편이 말안장 모양을 하고 있다.



신석기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청동기 시대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다.

자료17의 위것은 서부면 양곡리에서 출토된것이며 아래것은 은하면 장척리에서 발견되었다.

자료18)

장경호



결성면 역터굴에서 출토된 자료18의 장경호는 격자타날문(格子打捺文)으로 시문(施文)된 편구

형의 동체에 저부는 원저인 암갈색토기로서 백제초기나 그 이전의 유물로 추정된다.



자료19) 단경호

백제토기에는 승문(繩文)이 보편적으로 시문되는데, 이것은 고구려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바다를 통하여 중국의 화남지방토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주로 서해안지대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토기의 파급경로를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다. 구형동체에 저부는 원저로써 기전면(器全面)에 승문(繩文)이 시문되어 있는 암갈색의 토기로서 결성면 무량리 점말에서 출토되었다.

자료20) 단경호

태토의 표면색은 회갈색의 연질 토기로서 바닥은 평저(平底)로써 백제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던 전형적



인 백제토기다. 결성면 금곡리 원천에서 출토된 파편을 모아 접착제로 복원시켰다.

자료21) 뚜껑접시

몸통의 높이가 낮고, 작은 그릇위에 뚜껑이 덮인 형식으로 밑바닥은 둥그랗게 도드라져 있으며 출토당시 뚜껑은 유실되어 확인할수가 없다.



이러한 뚜껑접시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서도 나타나 5세기 이후에 활발한 유행을 보이는데 백제의 토기제작기술의 전파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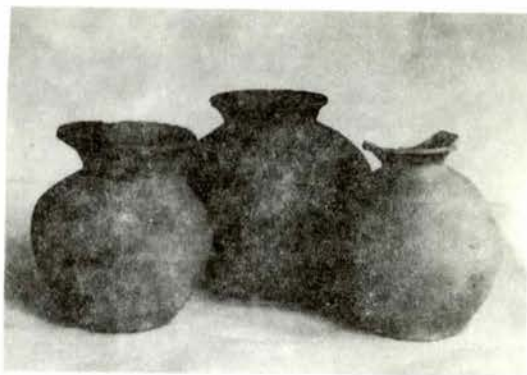
기능적인 면에서 이 용기는 일반적인 생활용기라기보다는 의식수행에 필요한 식품공헌용의 가능성이 크다.

결성면 성남리에서 출토되었다.

자료22) 백제토기

백제토기는 태토나 색조로 보아 세종류로 나눌수 있는데, 태토가 무문토기처럼 거칠고, 화분형 토기에서 주로보이는 적갈색 연질토기, 표면이 잘 마연되어 광택이 나는 흑색토기, 그리고 경질과 연질의 회청색 토

기가 있다. 기형에는 원저호(圓底壺), 평저, 고배, 삼족기, 기대등이 있는데, 초기에는 원저가 유행하다가 중기 이후에 평저가 많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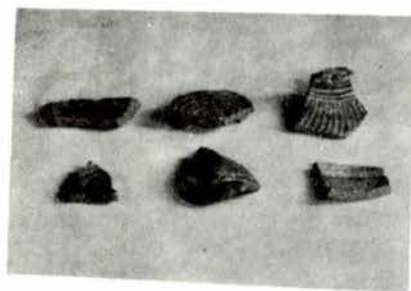


자료22의 토기군은 성남리 석당산 중턱에서 출토된 백제토기군이다.

자료23) 분청사기 백상감 파편

분청사기는 조선조 자기에 있어 매우 특색있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분청은 고려말기 퇴락한 상감청자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조 세종때에는 다양한 기법이 등장 크게 발전하여 세조때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약 2백년간 생산되었던 조선전도자기의 하나이다.

충남 공주의 계룡산록 일대에서 주로 철회문이 생산되었으며, 자료23과 같은 상감문으로써는 보령군 천북면 궁리에서도 파편이 다수 출토되었으

며, 결성면 읍내리 배다리에서 출토된 자료23 분청사기 파편은 도요지를 이루었을 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왕조 초기에 거의 전국적으로 분청사기가 제작되었음을 방증한다.

그 당시의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전국의 3백 20개소의 자기소와 도기소의 조사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자료24) 상감청자 병

청자의 상감기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개발한 기술이다.



고려청자를 말할 때 대체로 상감청자를 들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의도적으로 태토를 파내고 백토나 유색토를 입혀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다.

목이긴 병 어깨선이 몸체에서 풍만하게 벌어져 납작하게 여유있는 자세를 드러내었고, 몸체 상부에는 상감기법으로 구름무늬가 장식되었으며, 중심부에는 백상감으로 몸체를 한바퀴 돌렸다.

결정중학교에 소장되어 있는것으로 목이 잘려져있어 상감청자 병 또는 古器의 가치를 손실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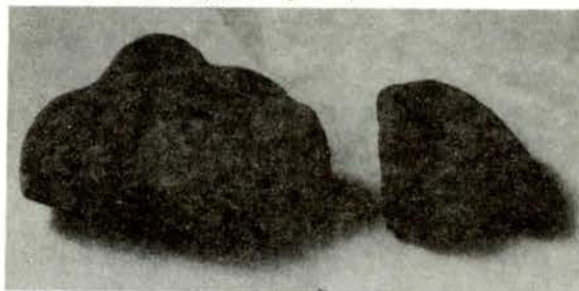
자료25) 백제 연화문 와당

암막새와 수막새를 당와(唐瓦)라고도 부른다.

막새에는 드림새가 부착되는데 드

림새엔 여러가지의 무늬가 배풀어진다. 이들 무늬는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지역별로 각기의 특색을 지닌다.

고구려기와 백제기와 신라기와로 나누어 부를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구분할수 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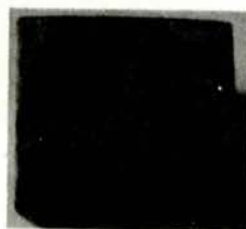
기와를 만들고, 무늬로 치장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었고, 그 어려움은 대단하여 백제에서는 와박사라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일을 전담토록 하였다.

지금 건물터에서 수습하는 파편들에서만 보아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이며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닮았으면서도 닮지 않은 천태만상이 무늬판속에 의장되어 있다. 결정중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25 와당은 연꽃무늬의 전형적인 백제와당이다.

자료26) 靑畵白磁 山水紋 四角硯滴

정사각형의 높이가 낮은 소형의 사각면적으로 상면의 중앙과 측면의 한 곳에 주구(注口)를 달아 놓았다.

각면마다 구획선을 긋고 상면에는 산수화를 그리고, 옆면에는 당초문으로 처리된 민화풍의 어리숙한 맛이 꾸밈없는



담백함을 엿볼수 있는 조선조 말기의 지방가마 연적이다.

현재 결성중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27) 백자청화 국화문병

청화백자는 순도가 높은 순백의 그릇표면에 코발트인 청색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순백자와 마찬가지로 잡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높은 장식계통의 유약을 그 위에 씌워 구워낸 자기를 말한다.

초기에는 난초를 주로한 초화문이 두드러지고, 그릇표면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간결하면서도 청초하게 그려졌던 초화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무늬가 커진다.

후기에 들어서면 물고기무늬, 용무늬의 다양한 그림들이 그릇표면의 전체를 메운다.

흰백자 바탕에 청초한 쪽빛그림이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조선청화백자는 한국자기의 멋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선조들의 독창적인 예술세계의 한 분야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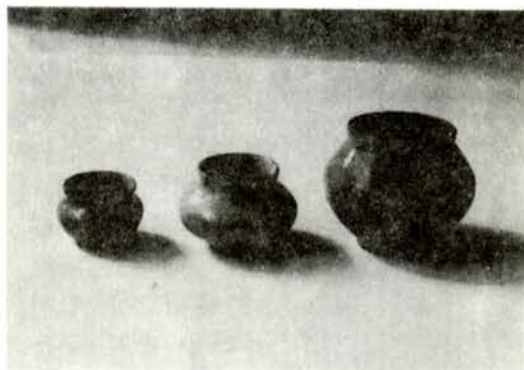


길게 뻗어 올라간 목과 어깨로부터 유려한 선을 이루며, 풍만히 벌어진 동하부에서 중심을 이루다 좁혀져 세워진 저부로 이루어진 기품있는 잘생긴 병인데, 목이 잘려나가 작품성을 상실했다.

문양은 밝고, 질은 청화로 활짝핀 국화꽃과 잎사귀를 친 필력은 거침이 없는 우수작이다.

자료28) 백자소호(白磁小壺)

후기 백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기벽이 두터워 실용성이 있고, 유약이 담청을 띄며, 말기에 가서는 질푸르고 탁하며, 굽에 굵은 흙모래반침이 묻는 등 마무리가 단정치 못한 퇴락된 백자로 된다.



이때의 항아리는 보통 짧고, 똑바른 목이 달리고, 동저는 둥글어진다.

결성중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28의 백자소호는 전형적인 지방가마 백자항아리들이다.



향토사 정보

편 집 실

■ 제74회 3.1절 184위의 선열합동위령제 열려

제74회 3.1절을 맞아 금마면 철마산 기미독립운동 기념비에서 기미독립운동 184위의 선열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홍주소식 3월호)

■ 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 '국가유공자 부훈탑' 건립 추진

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지회장·정진태)는 지난 3월 31일 회원 80여명이 참석하였다.

.....(홍주소식 3월호)

■ 서부면 양곡사에서 남당 한원진선생 제향

성리학 연구에 바친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었다.

.....(홍주소식 4월호)

■ 9월에 열리는 제34회 민속경연대회에 「결성농요」 충남도대표로 출연

.....(홍주소식 4월호)

■ 병오홍주의병 제87주년 제향 거행
5월 30일 홍주의사총에서 박중규군수, 이병철군의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 유족,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87주년 제향이 거행되었다.

.....(홍주소식 8월호)

■ 「백야 김좌진장군 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백야 김좌진장군의 일대기와 독립운동, 민족사상을 조사 연구하기 위한 「백야 김좌진장군 연구회」가 지난 7월 24일 문화원에서 열렸다.

.....(홍주소식 7월호)

■ 성삼문 신주 봉안, 제사지낸 외손 노은리 엄찬 고택 보존돼야

노은단유적보존회(회장: 임병순·홍북면 대인리·70)는 지난 6월 노은리 상리 분화마을 선정에 즈음하여 폐허가 되어 쓰러져가는 엄찬의 고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문화부에 건의하였다.

.....(주간홍성 7/19)

■ 결성농요단에 성금

홍주향토문화연구회(회장: 배동순)는 지난 15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남도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연습중인 결성농요단에 연습경비 20만원을 기탁하였다.

.....(주간홍성 7/26)

■ 박성홍선생 초청강연회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항전지인 주류성이 홍성의 장곡면 일대 산성이라고 주장하는 재야사학자 박성홍선생(77·덕산면 읍내리) 초청강연회가 지난 30일에 열렸다.

.....(주간홍성 9/6)

■ 농요연습격려 쇠도

성금 6백 51만원 접수, 6개 부녀회 점심 제공.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중인 결성농요단에 지난 7일 연습비용이 부족해 애를 태우던 참가자들을 호숫하게 했다.

.....(주간홍성 9/13)

■ 홍주전교 이견업씨 선출

공기 2544년을 맡은 지난 23일 홍성읍 홍주향교와 결성면 결성향교에서는 각각 추계 석전대제를 올리고, 공자를 비롯한 25석전의 학력과 도의정신을 기렸다.

이날 석전대제에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전교후임으로 이견업(갈산면 내갈리·76) 현 유도회장을 전교에 선출했다.

.....(주간홍성 9/27)

■ 백야생가, 가공공장 견학

지난 6월 먼 새마을협의회(회장: 박종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산시 조촌동 새마을협의회(회장: 배태우) 회원 27명이 지난 18일 갈산면을 방문 김좌진장군 생가와 갈산농협 가공공장을 견학했다.

.....(주간홍성 9/27)

■ 제10회 홍주문화상 수상자 확정

• 이만우(50), 새마을지도자 광천읍협의회장: 사회봉사 부문

• 신동석(65), 홍여고 교장: 문화교육 부문

• 김문수(51), 홍성군 체육진흥회장: 체육진흥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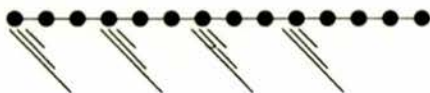
• 이숙영(39), 구항면 남산리: 충효열 부문

■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홍성의 결성농요-대통령상 수상”

16년만에 충남에 대통령상의 영예를 「결성농요」가 안겨줬다.

「결성농요」는 치밀한 구성과 출연진의 신명나는 동작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다.

.....(조선일보 10/9)



孝子 卜 僩 先生

복 익 채

선생의 성은 복씨(卜氏)요, 휘는 한(僩)이요, 자는 의숙(毅叔)이요, 호는 구암(久菴)이시다.

서기 1410년 경인의 홍주 여수동에서 출생하시었다. 시조 고려개국 일등공신 무공공 복지겸의 19세손이다. 부(父)는 위룡(渭龍) 호가 어은(漁隱)이시며 고려 공양왕조에 서사로 사문서직장에 출사 하셨다. 고려가 망하게 되자 정포은, 이목은 등과 더불어 고려 사직을 불들어 보고자 하였으나 영영 망하게 되자, 원통해 하며 일생을 비참하게 마치신 분으로 정포은은 선죽교에서 피 혼적을 남기고 이목은은 여주 강가에서 몸을 감추고 길야은은 멀리 고향에 돌아가 고사리를 캐게 되었다. 복어은께서도 홍주 여수동에서 그윽한 산림에 숨어서 여수에 눈물을 뿌려 선죽교의 영혼을 조상하였다.

이태조가 등극한 후 여러번 징병의 명이 있었으나 왕씨 외는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철석같은 충성으로 일생을 마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기의하고 겨우 말을 할쯤에는 배우지 아니하고도 아는것이 많았고, 뜻 깊은 글을 가르칠 필요없이 알고, 효제의 도리를 스스로 헤아리더니 자라서는 천지의 이치와 인륜의 도를 연구하시며 효도는 신명이 감동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며 근사록 등 서적을 무불관통 하며 호리를 분석함과 실마리를 해득 못함이 없으시며 직접 자서전에 나아가사 수미 합산의 아름다움과 비운변화의 이치에 몸소 실천 아니함이 없으시고 주역의 무극과 태극지체를 통첩하사 선천

과 후천의 이치를 모두 관통하였다.

또, 대연의 수법을 패지설지하사 삼재를 이루고 사시를 나누며 하도와 낙서의 오묘를 터득하심에 기지무지에 강유가 나뉘고 음양이 자리를 하고 선기옥형의 모양인즉 기삭영어의 수에도 유여편산 하고 주소간을 지나지 않아서 기주홍범의 서책을 통달하사 수를 조리로 풀으심에 비오고 별나고 답고, 추우며, 바람부는 때의 징조를 틀림없이 알았으나 신중을 기하여 갈력하였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출세의 관록에 뜻이 없으며 집안이 심히 가난하였으나 힘을 다하여 감지에 맞는 음식을 장만하여서 아버이를 섬기시더니 세종조에서 처음은 광홍수로 천거받으셨으나 나가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벼슬길에 나가면 어찌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이 아니리요, 그리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호조 정랑에 불러 출사는 하였으나 아버지 봉양에 걱정함을 임금께서 아시어 선생의 학문과 효성을 가상히 여기시어 그 아버이를 서울로 올라오게 분부하사 융숭한 대우를 베풀어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 모시는데만 온 정성을 다하시더니 그 부친께서 득병하심에 주야시탕은 물론 모든 음식물의 공양에 있어 쓰고 단맛을 살피시고 대소변의 색깔을 중시하며 그 병의 상황을 진단하며 매일 세번씩 목욕제게 하고 천지신명에게 기도로써 주문하고, 시탕과 정성을 다하여 복용케 하고,

일체 노비와 하인에게 시중시키는 일이 없었고, 손수 먼곳에 가서 샘물을 길러 오더니 하루밤 사이에 집근처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 올라와 선생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그 샘을 「효자천」이라 일컬어 전하여 오고 있다. 서기 1450년 경오년에 그 부친상을 당하여는 3년간 여막에서 피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여 한번도 입을 열고 웃어 본 일이 없이 매일 세 번씩 그 부친의 산소에 다닐때 때로는 폭우가 멈추기도 하고 대설이 그치기도 하며 산소앞 잡초를 뽑을 때는 오작이 모여들어 쪼아 뽑기도 하였다 한다.

서기 1452년 임신에 조정에서 선생을 유일로 사헌부장령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출사하셨다. 서기 1455년 올해에 단종 손위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문을 닫고 인사를 끊었으나 편모 모시는 효도만은 게을리 하지않았다.

여러가지로 다른데서 볼 수 없는 봉양에 정성을 다하셨다한다. 그후 병석에 눕게 되신후 어머니께서 하루는 모쟁이가 잡숫고 싶다 하시어 노심초사 걱정하고 사방에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구하지 못하고 태성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그 날밤 현몽하기를 선고 환우시 용출한 샘에 가보라 하기에 가보았더니 과연 모쟁이가 떠있어 건져다가 시탕하여 드리어 수일을 더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한다. 이런 연고로 이 샘을 「효자천 모쟁이샘」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

선생의 배위는 죽산 박씨 호조 정랑첩의 따님이시고, 후배위는 양성이씨 송지광부의 따님이시다. 총관 창녕 성승과 진사 기계 유해와 판관 한양 조윤상과 군수 정안문으로 더불어 동서간이 되었으며 성총관은 홍주 노은동에 있고, 유해 조윤상의 고향이 그 지방이어서 같이 한시골 십미터에 있어 원원상종하며 간절히 참망하고 서로 우의가 돈독하더니 매죽헌이 나시매 어려서부터 보도하며 자라서 교도로써 장성하게 되어 필경 대절에 절정을 세

울 수 있음은 오직 선생의 학문과 교수가 힘입음이 큼이라 서로 더불어 의사 소통한 시문이 있다.

선생께서 고향에 와서 감상을 쓰신 시문중에서 「爵祿寧爲卓節淫 清名宜學伯夷心 隻身一死何須惜 消息家鄉母病深」

-작독으로 어찌 높은 절개를 음탕하게 하랴. 깨끗한 이름은 마땅히 백이숙제의 마음을 배운바 있는데 외딴몸이 한번 죽기에는 무엇이 아가우리만은 고향집 소식을 들으니 어머니 병환이 깊다고 하더라.-

선생이 병중에 성질(成姪) 근보(謹甫)에게 보낸 서한에서 「平生爲愧限 南北所歸珠 白玉青山下 千秋一罪軀」

“평생에 부끄럽고 한이 되도다. 남북에 돌아가는 곳이 달라서 백옥청산하에 천추의 한 죄인의 몸이 되었도다.”라는 시문이 있다. 선생은 서기 1457년 병자 9월 18일 향년 47세로 타계하셨다.

서기 1458년 이조 조정으로부터 효행이 탁월한 분 10명을 채택하여 명나라 조정에 올리었더니 선생의 성휘(姓諱)가 맨 밑에 있었으나 위의 아홉분은 명첩에 도장의 자국이 찍히지 않고 선생의 성휘 한첩만 완전하며 염주가 반반하여 가고할만하여 명나라 천자가 이상히 여기고 곧 선생의 명첩을 물에 넣어 보았으나 물에 젖지 않고 도장 자국이 더욱 선명함으로 명나라의 천자가 더욱 칭찬하여 가로대 “이는 청구 일우의 효도가 아니요, 온 통천하의 대효됨에 부끄럽이 없다”하여 조선국 왕에게 국서를 보내어 여수동 사시던 마을앞에 정려문을 짓고 효자비를 세우게 하고, 그 자손으로 세세토록 녹을 먹게 하였다.

서기 1676년 병진에 홍북 노은서원을 세워 선생의 이질 매죽헌 선생과 오충신을 병향하고 서기 1706년 병술에 별묘를 세워 충숙공 성총관과 미암 김선생, 낙촌 박선생을 배향하고 이어서 서기 1770년 경인에 구암 복한 선생을 배향하여 선생의 도학과 충효가 탁이함을 모양 하였다.

애절(哀絶)한 “洪州文化” 누가 지키랴!

이 연 완

조개껍질이며 두 세아름 되는 돌덩이(石貨)가 돈(錢)으로 통용되던 그 때 것과 또 쓰기쉽게 마련된 지금 것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크게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우리고장 洪州人의 생활상도 크게 달라졌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문화가 그러하다. 변했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싹뻗집다시피 아주 달라졌다. 이것들은 비단 우리 洪州人뿐만은 물론 아니다.

全國的이요 世界的이다. 그리고 그 변모도 천태만상이다.

언제부터인가 알수없는 태고적부터 이 洪州땅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바뀌어 가는 세월속에 적응하면서 살고 살고 또 살아오면서 이 땅을 지켜왔다.

그러하면서 그들은 세속(世俗)에 얽매어 살다가 그만 때가되면 자기 생애(生涯)에 회로애락(喜怒哀樂)을 싣고 한 움큼의 부토로 되돌아가곤하였다.

위대한 人物이란 어떤 사람이나?

인류앞에 보람된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福音을 “칸트”는 깊은 理想을 “베에토벤”은 아름다운 音樂을 “간디”는 위대한 精神을 남기고 갔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은 무엇을 남기고 갔나?

한 토막의 인류역사속에 묻힌 “문화유산” 바로 그것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空手來 空手去』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틀림없는 인류역사의 한 토막을 남기고 갔다. 정녕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이다. 지금도 그들이 남긴 洪州人의 인류역사속에는 이것 저것 술한 先人들의 문화유산들이 아깝게도 여기 저기

임자를 잃은대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니 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며 또 수치일까?

어디서 뛰는 물방울이 바위를 물어뜯고, 내리 질리는 비탈진 白月山골짜기 층층히 헐어만가는 해묵은 비각(碑閣)속에는 기억마저 잊고있는 이끼속의 비석(碑石)들. 그런가하면 그 얼마나 오랜세월동안 山허리를 휘어감고 무한한 외침의 화살과 맞싸워 왔는지 이제는 그으른 얼굴 얼굴에 금버섯이 덕지덕지 고요히 침묵을 지키면서 아득한 후예(後裔)들께 뜨거운 호국의 정신을 일깨워주는듯 여기 저기 돌더미 山城들이 한여름 무성한 잡초에 얹혀 소리없는 애향(愛鄉)의 함성만 외치고 있다.

20세기 洪州人의 진실한 애향가는 누구이나고 묻고있지 않는가? 현대 왜 우리는 성큼 나서서 대답을 못하나 여기에 내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말이다. 자료는 있어도 만드者가 없드시 나라의 보배로운 사적(史蹟)을 위시한 사우(祠宇), 정자(亭子), 명목(名木), 거목(巨木)같은 그 이름도 홍주목(洪州牧) 그가 자리하던 바로 그 땅에 손색없는 한낱 이름날 고적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어 놓고 애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같아서는 白月山中턱 넓직한 공원속에 홍주아(洪州衙=옛관청:지금의 군청 자리)를 한눈에 내다볼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다 웅장한 “대홍주박물관”을 지어놓고 우리 先人들의 피땀어린 그 문화유산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만고에 빛내고 싶은 심정 하늘과 같다.

그뿐이라! 그 옆에 아끼자기한 민속촌

도 만들어 우리고유 전통민속도 한눈에 볼수있게 늘어놓고, 땅끝까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심정 이룰데 없다.

향토문화연구회! 이름도 취지도 모두 다 좋다만은 갖은게 없다. 맨주먹이다. 영(零)이다. 다만 갖은것이라곤 열(熱)! 그리고 의욕(意慾)! 이것뿐이다. 그밖에 아무것도 갖은게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신한국창조"라는 "렌트겐" (Rantgen)으로 자신을 비추어 철저한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目的은 물론 뚜렷하다.

건전하게 오래 오래 잘 살아보자는데에 있다. 7천만 우리가족 그 누구하나도 이를 마다하겠는가? 허나 안된것은 거기에 비치는 갖가지의 사회병리(社會病理) 바로 이것이다. 이것들이 우리를 놀래주며 괴롭히고 있다. 그중에 하나 치부(致富)가 있다. 가치성을 잃은 그 "치부"가 점차 사회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아연질색(啞然窒塞)케 하고 있다. 그것도 다름아닌 만민의 표상(表象)이 되어야 할 공직자 바로 그들이 태반이다. 여기에서 나는 그들에게 노려 한마디 말하고 싶다.

사랑, 명예, 지위, 所有…….

이 모두는 떴다 사라지는 한조각의 뜬 구름이요, 나고 所望하고 바둥거리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만다.

잘살거나 못살거나 20년을 살거나 70년을 살거나 영원으로 흘러가는 時間앞에는 다같이 일순(一瞬)이요, 일찰라(一刹那)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空手來 空手去"라곤 하지만 거저야 갈수 있나.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나. 人間이기에 만물지령(萬物之靈)이기에 말이다. 萬古에 남길 누명(陋名)보다는 萬人의 표상으로 길이 이름을 빛내는 것이 그 얼마나 가치롭고 떳떳한 人生일까?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써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똑똑히 보고 값지게 없앨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주저 말고 서슴치 말고 진리(眞理)와

이성(理性)을 좇아 그리고 후손(後孫)으로써 洪州人으로써 해야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키는 일쪽으로 마음을 돌려보는 것이 어떠할까?

워낙이 모자라는 이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한마디 외쳐본다.

보라! 지금 당면한 우리사회를!

그토록 허욕의 소용도리속에서 호탕했던 과거의 고관대작들이 지난 세월동안 달콤했던 사랑, 명예, 지위, 所有들이 이제는 만고에 남겨질 누명으로 바뀌어 무거운 쇠고랑을 손목에 걸고 가서는 아니 될 침침한 감방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一生에는 두번이 없다. 단 한번이다. 잘못 살았다하여 다시 살아볼수는 결코 없다. 大學入試에는 재수도 삼수도 있고, 試合에는 연습도 있고, 또 "다음"도 있지만 우리의 생애(生涯)에는 오직 단 한번밖에 없다. "Only one!"이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찌 나의 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겠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는 심각하며 소중한 우리의 一生이다.

살줄도 알아야 하지만 죽을줄도 알아야 한다. 값지게 죽어야 한다.

남기고 가야 한다.

그토록 쟁쟁했던 그 옛날의 "홍주목" (洪州牧)! 그시절 그 옛날에 남겨진 우리 문화를 누가 지켜야 하나?

보이고 안보이고, 알고 모르게 잠재한 술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애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용단을 내려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삶"쪽으로 거름을 재촉하자.

그것은 오직 선인들이 남겨준 그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여 자손만대까지 이어주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時間과 힘(Power)을 낭비 말고, 하루빨리 덤벼들어 우리문화를 지켜보자.

●●●●●●●●●● 회원가입안내 및 편집후기

● 홍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홍주문화**는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연구회원은 연구회원, 후원회원, 구독회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구회원**은 성별, 나이, 신분의 차별없이 향토사 연구에 관심있는 홍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정회원입니다.

● **평생회원**은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지원해 주시는 개인 및 단체로써 가입후 필요한 회지와 홍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기획물을 받아 보실 수 있고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회원**은 책의 제작가에 해당하는 연간 1만원의 회비로 한 해동안 거르지 않고, 책을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및 회비불입 방법**은 직접 홍성문화원을 방문해 주시거나 다음의 온라인 번호

■ 농 협: 447-02-038112
예금주: 김 숙 회

■ 충청은행: 590-02-034374

예금주: 허 규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편집후기

결성농요의 대통령상 수상이란
패거를 접하며 원고교정을 마쳤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전통의 결과...
최선달, 김창용 등 조선 판소리의
대가들이 살았던 결성땅의
그 후손들!
발굴과 고증이란 끈질긴 집념을
보여준 결성문화재보호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빛어낸
전통의 노래굿!
“어허라 상시디여 결성농요 좋을시구”

1993. 10. .

臥 石



